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徐閏吉
印刷人 李揆行
主幹 金容喆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部長 金勝培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
서울시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㉖8131~9
本社直通 ㉖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707
전화 경주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亞洲대회기간중 임시休業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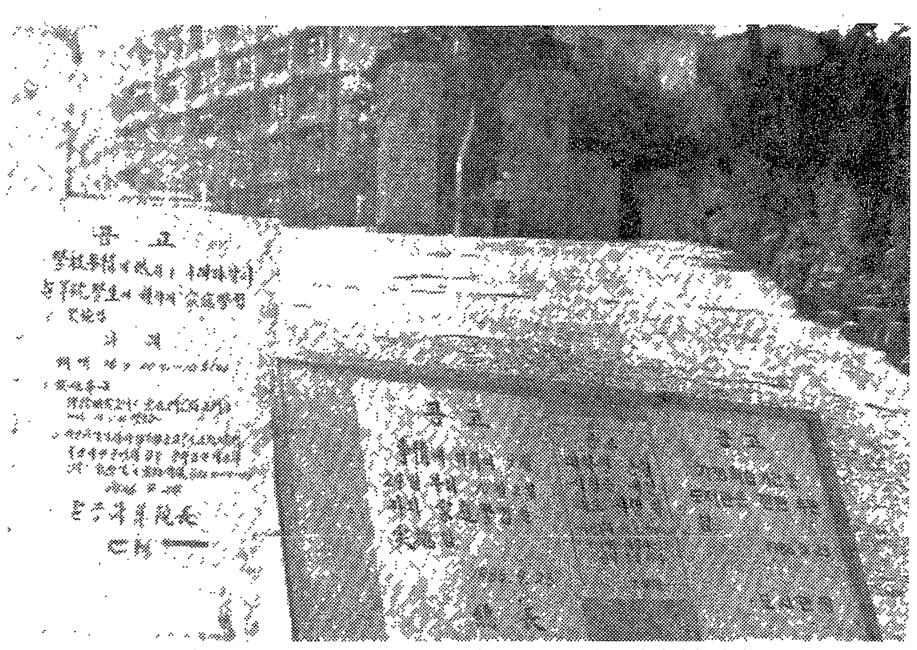
9일간 학교측 "학생 보호위해 불가피한 조치"

本校는 지난달 24일부터 10월2일까지 9일간을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해 臨時休業에 들어갔다. 〈해설기사 7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에 열렸던 긴급학처장회의에서 결정되어 24일부터 도서관의 휴관과 함께 재학생들의 학교출입이 전면통제되었다.

학교측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아시아경기대회저지, 불재법철폐실천대회, 제헌의회 소집등을위한 남부지역평의회실천대회등 계속되는 시위로부터의 학생보호및 교육시설의 보호와 각 대학연합시위 방지라는 측면에서 부득이했던 조치였다고 밝혔다.

당초 학교측은 정상적인 학사일정의 진행을 위해휴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10월2일까지 9일동안을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총장실점거…철폐요구

법정 수업일수 결손 없어

總學

이번 휴업기간동안 휴업철폐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점거농성이 잇달았다.

지난달 26일오전9시 이준흠 (산공4) 총학생회장권한대행, 민승현 (사학4) 총대의원회 의장등 학생기구대표5명이 총장실에 들어가 「휴업철폐」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학생들은 휴업이 아시아경기대회의 원만한 진행을위한 기회주의적 속성을 드러낸 행위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휴업철폐와 일방적 휴업에 대한 학교및 총학측의 공식입장을 각 가정에 통고할 것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농성은 별다른 성과없이 오후8시40분경 3명의 단과대 학생회장은 소속대학학장의 설득으로 농성장을 나왔으며, 곧이어 이준흠 권한대행과 민승현 대총의장도 교직원들에 의해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또한 지난 1일 오전10시에는 총학생회 홍보부장 김장헌 (인철4) 군과 종교부장 김인묵 (불교4) 군이 명진관옥상을 점거한 뒤, 휴업조치에 대한 관계자의 퇴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나 오후 9시경 가족및 교직원에 의해 해산되었다.

한편 慶州캠퍼스도 지난달 24일 학교측의 임시 휴업조치에 항의, 총학간부등 18명이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2차례에 걸친 부총장과의 면담에서 「휴업성명서 발표」「도서관 개방」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총학생회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이튿날인 25일 새벽6시까지 교내에서 횃불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했다.

今週一言

법(法) 그 자체가 불(佛)이기때문에 이 불(佛)에는 색(色)도 없고 형(形)도 없다。색도 형도 없으므로 오는 곳도없고 가는곳도없다。
〈佛敎聖典〉

"주체적 大學文化 창조"

축준위 「民族民主大東祭」준비 한창

총학생회는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의 축제명칭을 「民族民主大東祭」로 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운영委는 또 이번 축제준비작업을 위해 6일자로 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이준흠)를 구성하였다。

현재 축준위가 기획하고 있는 행사내용을 보면 체전, 학술제, 문화제 (써클제 포함) 등 각부문별로 나누어 전체동국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대학문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가을 農村活動 취소

총학 정치적 상황 변동때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가을 농촌활동」이 취소되었다。

총학생회는 이번 추계 가을농활 취소결정에 대해 『여름농활의 후속작업으로서의 가을 농활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정치적 상황의 변동인 휴업과 학사일정인 중간고사에 대한 농활대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학술·문화·체육제에서 보다 통일되고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CPA 2次시험 本校生 4명合格

제21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본교는 최대식 (대학원 회계과) 군을비롯 4명이 합격하였다。

지난달25일 발표된 합격자는 다음과같다。

▲최대식 (대학원회계과) ▲박건수 (86년·회계과졸) ▲이범구 (86년·경영과졸) ▲오경진 (85년·경제과졸)

社告

第1回 東大文學賞 入賞者 발표

本社에서 개교 80주년을 맞아 東國의 文學的 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壇을 주도해갈 참신한文才를 발굴키위해 공모했던 전국 대학생 대상「제1회 東大文學賞」심사결과 다음과같이 入賞者가 결정되었읍니다。

◇本賞

김상득 (大邱大경제3) 詩「고양이」

◇佳作

詩부문 : 장은식 (釜山大국문2)「幼年수업」
小說부문 : 임형욱 (東國大국문3)「겨울群像」
추계숙 (檀國大국문1)「잠자는江」
評論부문 : 신철하 (漢陽大국문4)「한국전쟁과 현실인식」

◇審査委員

詩부문 : 金長好 (詩人·本校교수)
李炯基 (詩人·本校교수)
申庚林 (詩人·同門)
小說부문 : 金文洙 (小說家·同門)
韓龍煥 (小說家·本校교수)
金容喆 (小說家·本社주간)
評論부문 : 洪起三 (文學評論家·本校교수)

◇施賞式

1986年10월18일 (土) 오전11시 본교총장실

*入賞者는 10월18일 (土) 오전10시30분까지 來社바랍니다。
*入賞作品은 949號 (10月21日字) 에 게재 됩니다。

東大新聞社

중간고사 수업중 실시

13일부터 학사일정 재조정돼

9일간의 임시휴업으로인해 중간고사가 1주일 연기되는등 86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이 변경, 조정되었다。

지난 6일 오전10시 학처장회의에 의해 결정된중간고사일정을 보면 전공과목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기초·교양과목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교무처에 따르면 「특히 이번 중간고사는 전공, 기초교양과목 모두 정상수업을 재진행하면서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업시간중 1시간을 할애하여 필답고사, 과제물, 구술시험, 기타의 평가방법을 통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종전과 같이 기초·교양과목의 고사일정을 별도로 확정, 발표하여 실시할 경우 고사장 및 감독관계로 전공과목은 1주일분의 강의실 수업을 할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의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3일~5일=8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2월8일~13일=기초·교양과정 기말고사 ▲12월15일~20일=전공과목 기말고사▲12월22일~87년 2월25일=겨울방학 ▲87년2월25일=86학년도 졸업식 ▲87년2월26일=개학 ▲87년 2월26일~27일=등록

▲휴업조치와 더불어 굳게 닫힌 중앙도서관。

보리수

業風

曺勇吉

폭풍이 할퀴고 지나간 들녘에도 상처를 아물리는 秋收의 설레임이 물결친다。

오곡이 풍성한 계절, 소슬바람과 남빛바다가 짙게 밀려오는 계절 들판과 낮은 산능성이에 마음껏 향내음과 멋의 자태를 뽐내고있는 들국화의 청초함이 마음까지도 설레이게 만든다。

人間은 꿈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다。크건 작건그것이 가상이든 眞想이든 그꿈으로 하여금 지나온 세월과 다가올 세월에 자연스레 대처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는 세월 막을자도 없거니와 오는 세월 붙잡아 두지도 못한다。「나라는 존재가 잉태되어 그것도 부모의 연에 의하여 처음으로 나의時間과 나의空間을 형성하였으니 이것이 無始無終의 時空속에서 하나의 점을 찍은 나 자신의 시공의 시작임에…。우리 모두는 우연히 오지 않았고 또 모두는 우연스레 가지를 않는다。

因緣起果의 돌고도는 윤회의 수레바퀴같은, 아니 우리자신들의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과 삶에 대한 기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업풍에 따라서 우리 존재는 이다지도 복잡다난한 현상세계를 연출하고 있는 연기자요 연출자요 감독이며 동시에 주연이며 조연이요 엑스트라인지도 모르겠다。수많은 상념과 한없는 바램속에 영육은 흐르고 그 흔적과 자국은 도처에 남는데, 자책과 자조와 반성과 참회의 心性은 어디에 있을까。

나와 남, 남과 나와의 사이에 주고 받는 모든 일들이 서로의 價値를 존중한 일이 얼마나 되었던가。업신여기는 생각, 오만불손한 태도와 감정은 없었던가。아니면 밤잠을 못자며 저주하며 비방한 일들은 없었던가。모든것은 自由다。自由民主主義의 이념은 숭고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自由를 빙자하여 저지른 언행, 폭행, 이간, 중상은 자유나 民主와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다。자유와 민주의 꽃은 상호 가치존중과 상호이해에 있음을 모르는자 없지 않은가!

『人類衆生의 無明의 겹질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파해주신 佛陀世尊 부처님이 모든 生命의 尊重과 귀중함을 일러주신 뜻이 여기에 있지 않으실까!

相對的인 世界에서 상호존중과 신뢰의 회복이야 말로 모든 苦痛과 갈등의 연옥에서 빠져 나갈수있는 新業風이라 음미해본다。

慶州, 하천 복개 공사

10일부터 도비 4천만원 유치

慶州캠퍼스에서는 경북도비 4천만원을 유치, 오는10일부터 정문앞 하천복개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하천복개공사는 정문앞 환경개선과 함께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한것으로 학교당국이 경북도비 4천만원을 유치해착공하게된것이다。

이번공사는 한방부속병원쪽 하천34m를 기존의 우회도로에서 7m폭으로 더 넓히고 5·6a를 포장하게 되는데 월성군이 공사 시공일체를 맡아 오는12월 10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축중인 진흥관건물은 외곽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내부공사만을 남겨둔채 내년2月준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자연과학연구소장 閔泰鎭 교수

<閔泰鎭 교수>

학교당국은 지난달 24일자로 자연과학연구소장에 閔泰鎭 (이과대 화학과) 교수를 金泰富 (이과대수학과) 교수 후임으로 임명했다。

동원학술상원고 20일까지 추가모집해

본교 대학원 학생회에서는 본교 대학원생을대상으로 「제1회 동원학술상」 논문을오는20일까지 추가모집한다。

職員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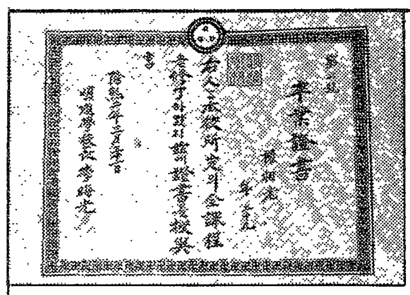
▲이상학=免학생처 학생과 命총무처 비상계획과근무 ▲이원봉=免학생처 학생과 命총무처 비상계획과 근무 ▲김종백=免기획조정실 기획과 命의대및 병원건립본부 근무 (이상 9월29일字) ▲노덕일=任학생군사교육주임교관 命총무처 총무과 (학군단) 근무(10월1일字)

本社辭令

修習記者 ▲南貞玲 (영문1) ▲柳畯燦 (경제1) ▲林忠範 (농경1) ▲閔在禧 (국교1) ▲金榮民 (문리대영문1) ▲鄭星基 (문리대영문1) 任記者 〈이상 10월1일자〉

알림

다음 949號는 중간고사 관계로 한주 쉬고 오는 21일 (화) 發刊됩니다。



제1회 졸업증서(退耕 權相老는 본교초대총장을 지냈다.)

개교80년

결코
짧지않은 역사를 지켜온
동국대학교
그 年輪의 자취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개교 80주년에 즈음하여 교사(校史) 사진전 겸 교내간행물·재직교수저서전을 마련했읍니다.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정진해 온 동국대학교의 발자취로서 우리나라 대학사의 이해와 조명에 좋은 기획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시사진 목록

명진학교 시대(1906~1909)
- 초창기 교사
- 개교에 관한 내용 (佛敎通史)
- 제1회 졸업증서

불교사범·불교고등강숙·중앙학림·불교전수학교 시대(1910~1930)
- 불교사범교전
- 萬海 한용운
- 중앙학림승격운동 기사
- 재단법인 조선불교 교무원
- 石田 박한영
- 불교전수 교표
- 등교모습
- 「一光」목차와 내용

중앙불교전문학교 시대(1930.4~1940.5)
- 교표
- 교가와 교사
- 수업광경 및 시간표
- 包光 김영수
- 중추음악 대연주회
- 웅변대회
- 탁구
- 테니스
- 한강 뱃놀이
- 대동강 졸업여행
- 금강산 탐승
- 근로보국대
- 하교 모습
- 「룸비니」지 표지
- 학생임원 총회
- 졸업환송회

혜화전문학교 시대(1940.6~1946.9)
- 교사
- 전교생
- 중·혜전 일람
- 성적표
- 즐거운 학창시절
- 동대문 앞의 졸업생들

동국대학 시대(1946.10~1953.1)
- 교표
- 「동국」지 창간호
- 동대신문 창간호
- 동국문학 발표회장
- 동악선생 시단
- 동국시집
- 雷虛 김동화·
- 교직원 야유회
- 제1회 졸업생
- 예술축전 포스터
- 시가행진
- 제4회 전국대학축구 우승

동국대학교 시대(1953.2~현재)

〈1950년대〉
- 교기
- 도서관
- 농장
- 숭정전
- 기원학사
- 退耕 권상노
- 부산 피난지 교사와 학생들
- 명진관 발파
- 명진관 정초식
- 명진관 기공기념
- 백성욱
- 모의재판
- 졸업식
- 대학인쇄소
- 海圓 황의돈
- 실습농장 시찰
- 한복·양장의 앙상블
- 고려대장경 영인본
- 美아이오와大 교수 내교
- 교육기재 기증
- 졸업장을 든 여학사들

〈1960년대〉
- 4·19 데모
- 부상자 문병
- 동우탑 제막식
- 노희두 묘비
- 현대화에 밀리는 구교사
- 梵山 김법린
- 모의국회
- 한국대학신문기자협회 총회
- 부정부패일소 가두캠페인
- 성상
- 서장대장경
- 황건문
- 无涯 양주동
- 동국문학 강연의 밤
- 芝薰 조동탁
- 한일굴욕외교 반대시위
- 김중배 묘비
- 74명 감금창고
- 구속학생석방 호소문
- 양치광문고
- 동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장창선 시민환영대회
- 교지훼손 확인하는 서울시장
- 60주년기념 종합체육대회
- 불탄법요식
- 아이오와大와의 자매조인
- 「휴강없애자」캠페인
- 종교문제 심포지움
- 입학시험
- 권농일 모심기
- 게시판
- 제1회 전국대학체육대회
- 프리츠박사 강연
- 실험실습
- 동대신문 제호변천
- 동국포스트 창간
- DUBS방송장면
- 여학생 레크레이션
- 캠퍼스풍경

〈1970년대〉
- 「용맹정진」
- 조감도
- 코끼리상 제막식
- 공무원교육원 인수
- 예불
- 제1회 동국학원 체육대회
- 불교합창단 공연
- 총장·학생 친선바둑
- 청담 대종사 영결식
- 모의투표
- 황건문 철거
- 제1회 전국대학교련실기대회
- 리더쉽 워크샵
- 불교세미나
- 전국 무궁화심기운동
- 10월유신과 휴교
- 불탄일 관욕식
- 제등행렬
- 다함께 노래부르기
- 와세다大와의 친선축구
- 신입생합격자발표
- ROTC임관
- 경제학강연회
- 네팔외상 내교
- 연습림관리소
- 졸업축하행진
- 세계불교학술회의
- 전국순회 학술강연회
- 石齊 조연현
- 정각원 개원기념법회
- 교내 자연보호캠페인
- 박물관 내부
- 고려대장경 영인본완간 고불식
- 동굴탐험활동
- 이범선
- 생물표본실
- 교내간행물
- 전자계산소
- 경주분교 임시교사 현판식
- 경주대학 건설기공·기초공사

〈1980년대〉
- 도약동국
- 동국의 종
- 정각원
- 경주 인문사회학관 준공
- 마나슬루 등반
- 파랑새호 태평양횡단
- 경주 기숙사 준공
- 관제총학저지 서명운동
- 자유의 벽
- 제1회 국제경영강좌
- 심포니 오케스트라
- FT 적외선분광기
- EW大 100주 휘장
- 경주 한방병원 개원
- 세계야구 역전홈런 한대화 환영회
- 축제프랭카드
- EW大와의 미술교류전
- EW大 총장의 경주캠퍼스 기념식수
- 탈춤
- 탑돌이
- 중고차부수기
- 마당극
- 차전놀이
- MBE실험기
- 야구·축구 우승 현수막
- 계산고시학사 준공식
- 동국학원 재산공개
- 야구부 미국원정경기
- 예비수험생
- X레이분석기
- 대마도 학술조사발표회
- 동창회 정기총회
- 국회의원 당선축하연
- 동우회보
- 대학야구 춘계리그우승 행가래·가두행진
- 전자현미경
- 학도호국단 현판 화형식
- 총학선거 개표
- 제12회 총장기쟁탈 고교농구대회
- 총장·재학생 공개간담회
- 응원단
- 낙산학사 준공
- 세계최고 다라니경 복원본
- 제24회 전국고교문학콩쿠르

개교80주년기념 동국대학교校史사진·교내간행물 재직교수저서 전시회

일시 : '86년 10월 22일(수)~10월 26일(일) (개전식 : 10월 22일 오후 3시)
장소 : 한국디자인 포장센터 3층 전시실

동국대학교 東大新聞社·中央圖書館

가정학습 有感
—自省·自愧 할줄도 알아야

사설

本校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9일간에 걸쳐「가정학습」이라는 명목으로 休業을 단행한 바 있다.

이는 솔직히 아시안게임 기간중 만일에 있을 지도 모르는 어떤 事態에 대비하여 학교당국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어쩔 수 없이 택한 하나의 苦肉策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家庭通信文에도 밝혀져 있지만 학교 당국이 休業을 결정하게된데는 그만한 고충과 배경이 있었던 것같다.

그 첫째는 2학기에 들어서면서 본교뿐 아니라 상당수의 대학에서 학생소요가 加熱되어 왔다는 점이고、둘째로는 9월 중순 이후의 본교 소요에서는 팔을 다쳤거나 눈을 다친 학생을 위시하여 상당수의 부상학생이 속출했다는 점이고、세째는 소요가 있을 때마다 최루탄가스와 각구·각목 파손 등으로 괴로움을 겪는 학교주변 주민들의 抗議가 강경했다는 점이며 네째로는 본교가 도심、특히 外國人들이 많이 투숙하는 몇몇 호텔과 인접하고 있어 그들에게 주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점 등을 들고있다.

그밖에도 본교제반교육시설의 안전문제와 몇몇 휴업한 他大學과의 동조문제등도 고려가 됐을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든 몇가지 이유나 명분이 설사 휴업을 불가피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냉철하게 휴업 그자체가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것은 위에든 너댓가지의 명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大學의 責務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있기 때문이다. 재언할 여지도 없이 천재지변、혹은 그에준하는 비상사태가 결코 아니고서는 大學의 강의와 연구활동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不文律이 곧 대학의 책무라 할것이다.

물론 우리를 감싸고 있는 난기류나 이 시대의 진통을 예측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다. 따라서 수업을 계속할 경우 더많은 학생들의 희생이 따르고 때에 따라서는 돌이키기 힘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간능성도 엿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이지、예상이 반드시 현실화 된다고는 볼수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波高가 예상은 됐지만 수업을 할수있는 날까지는 진지하게 수업을 하다가 가령 不可抗力의 사태가 생기면 그 一步前에 休業을 단행했어도 좋았을 것이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의 가정학습을 당연히 취한 자연스러운 절차였다기보다는 千慮一失의 自救策으로서 강의와 수업을 생명으로 알아야할 大學人에게는 마땅히 自省하고 自愧해야할 일로 가슴아파해야할 것이다.

다행히 학교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本校는 2학기 開講을 1주일 앞당겨 실시한관계로 학년초에 마련한 학사일정에 다시 맞추어 學事運營을 할경우 소정의 수업일수의 결손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2학기 중간고사기간에도 전공과목시험을 시간중에 실시하는 것은 물론 기초·교양과목의 시험도 전공과목 강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중에 교수재량으로 실시하기로하여 수업의 결손을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금년과같이 특수한 여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16일간의 열기를 뿜던 아시안 게임도 끝났다. 본교에서도 재학생의 복싱을 위시하여 졸업생의 레슬링등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쾌거는다같이 축하해야할 일이다. 아울러 본교의 상당수의 학생도 자원봉사대에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일한 보람도 값진것으로 격려하고자한다.

다만 앞으로는 아무리 국가차원의 스포츠行事가 열릴지라도 우리 대학가에 신성한 강의와 연구활동이 중단되는 비극이 오지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樂浪郡
요동·요서설 ↔ 평양지역설

○… E. H. Carr는「歷史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對話」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韓國古代史중 쟁점의 하나인 樂浪郡의 위치규명은 뜻있는 일이라 생각해 2회에 걸쳐 遼東·遼西說과 平壤說을 지지하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두 筆者의 辯을 싣는다. 이에 대한 眞僞는 훗날의 역사가 말해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편집자 註〉 …○

요동·요서설

최근 考古學的 성과는 遼東遼西說 뒷받침
樂浪郡 위치、古代史의 바른이해에 중요

I、머릿말

前漢 武帝때 설치된 樂浪郡은 漢四郡의 대표적 존재로서 古朝鮮의 中心疆域에 설치되었음으로 그 위치의 정확한 인식은 韓國古代史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근대한국사학이 시작된 이래로、일찌기 申采浩、張道斌、鄭寅普등여러 학자들은 그 위치를 오늘날의 遼東·遼西지역으로 비정하였으며(遼東遼西說)、최근에까지 일부학자들은 그 위치를 평양지역으로 보는 기존의 다수적 견해 (平壤地域說) 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異議와 反論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北韓의 역사학계는 이문제에 대하여 1960년대에 이큰 논쟁이 있은 이후 요동요서설이 우세한 입장에 있는 사실은 참고할 만하다.

낙랑군의 위치를 규명하는 작업은 考古學등 다각적인 분야의 연구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낙랑군에 앞서 존재했던 古朝鮮의 위치를 규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Ⅱ、中國文獻에 나타난 古朝鮮의 位置

고조선의 중심강역은 곧 樂浪郡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고조선이 존재했던 戰國時代부터 前漢初 또는 그로부터 오래지 않은 시기의 中國文獻은 고조선의 위치를 오늘날의 요동·요서 지역인 발해의 북쪽연안으로서 그 서쪽境界가 중국 河北省의 난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山海經은「고조선은 남쪽이 바다와 접해 있었고 북쪽은 산과 접해있었으며、중국동해(황해)의 안쪽、북해(발해)의 귀퉁이에 위치하였다.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海內北經、東海之內 北海隅 有國名曰朝鮮：海內經)」라고 기록하였다.

史記集解와 史記索隱은 조선열전에 기록된 衛滿朝鮮의 도읍 왕검의 위치가 昌黎險瀆縣、遼東險瀆縣지역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都王險의 注：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應劭注 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그 곳은 오늘날의 요동요서지역 (난하부근 昌黎지방) 에 해당된다.

문헌에 의하면 古朝鮮과 中國과의 서쪽 경계에는 遼水가 있었는데 史記、呂氏春秋、淮南子、管子등을 통하여 볼 때 당시의 요수는 지금의 遼河가 아닌 중국 하북성의 난하임을 알 수 있다. (一例로 秦二世皇帝가 난하동부연안의 갈석산지역을 다녀온 사실을 遼東에 다녀왔다고 기록：史記 秦始皇本紀 二世皇帝 元年條)

이런 기록들에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遼東·遼西지역 (특히遼西지역) 이었으며 중국과의 경계가 난하와 갈석산부근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조선 멸망직후 그 중심지에 설치된 樂浪郡의 위치를 오늘날의 요서지역 갈석산 부근으로 전하는 史記 夏本紀 (樂浪遂城縣 有碣石山) 와 漢書 賈捐傳 (東過碣石以玄菟樂浪爲郡) 등의 기록은 정확한 것이 된다.

Ⅲ、考古學的 考察

위에서 살펴본 견해는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와도 연결되고 있다.

고조선의 초기문화는 青銅器文化인데 중국의 청동기문화와 동방의 청동기문화의 경계선이 遼西地方의 난하라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 開始年代는 BC 2400년경으로 밝혀지는데 이 시대는 사회제도의 정돈、계층분화 등이 시작되므로 고조선과 같은 정치권력의 등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개국연대를 B·C 2333년경으로 기록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史記에서 B·C 11C경에 중국으로부터 고조선으로 이동해 간 것으로 전하는 箕子의 유물이 요서지역 (喀左縣) 부근에서 발굴되었으며、최근에는 같은 지역에서 韓國의 신석기문화의 대표적 유형인 빗살무늬토기、積石塚、石棺墓등과 함께 대규모의 유적유물이 발굴출토된 사실등은 고조선 및 그 뒤를 이은 낙랑군의 위치를 요동요서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平壤의 樂浪遺蹟은 대부분 後漢이후의 것이다. 漢四郡은 前漢의 武帝때 설치되었는데 평양의 유적이 後漢이후의 것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유적이 한사군 유적이 아닐 간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한사군이 설치되어있을 시기에 평양지역에는 崔理라는「王」이 다스리는「樂浪國」이 있었는데 後漢初인 AD37년에 高句麗에 멸망되었고、다시 AD44년에는 後漢 光武帝가 군사를 파견하여 평양지역을 치고 군사기지를 마련하였는데、그 명칭은 여전히 樂浪이었다.

따라서 평양지역의 樂浪遺蹟은 평양지역설의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韓國古代史에 요서지역의 樂浪國、그뒤의 후한광무제의 군사기지 樂浪등 3개의 낙랑이 존재하였다는 견해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 평양의 낙랑유적은 대부분後漢 이후의 것으로서 漢四郡의 유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Ⅳ、問題를 보는 시각

지금까지 밝혀진 關聯史料를 살펴보면 체계성이나 사료의 양에 있어서 遼東遼西說의 근거사료는 상대적으로 零星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관련사료전체가 무시되어야 한다거나 요동요서설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日本學界가 古代의 南韓일대에 수백년간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任那日本府說의 관련사료만을 살펴보면 그 존재를 부정해온 현재까지의 우리 學界의 논거는 대체로 약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歷史的 史實의 규명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오히려 빈약한 史料의 활용과 그 연구가 장려되어야 하듯이 漢四郡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고찰되어져야 하겠다.

다만 소박한 민족감정이 앞서는 주장은 반드시 지양되어져야 하겠고 아울러 새로운 견해에 대한 반발이 사료의 비교、검토를 통한 것이 아니라 종래의 통설에 의한 선입견의 영향때문이라면 역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재남 〈법정대 법학과〉

평양지역설

평양설의 주요근거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
漢四郡의 위치와 諸縣의 세밀한 考證절실

I、序言

해방이후 韓國史學界는 植民史觀의 克服이라는 과제속에 日帝의 韓國史研究에 많은 손질을 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결실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 많은 부분에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연구를 통해 한국사는 새로운 모습을 지닐 수 있었다. 樂浪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검토를 통해 장기간 韓半島 대부분에 걸쳐 존재했었다는 日帝官學者들의 說에 수정이 가해졌었다.

이때 일부 실학자들의 說을 이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요동·요서설에 관해서도 검토했음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료와 전후시대적 상황、그리고 고고학적 성과등을 통해 平壤說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樂浪郡의 위치에 대한 論難의 歷史는 매우 오랜 것으로 특히 唐代에는 많은 注解들이 나왔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것이며 다각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이다.

Ⅱ、三國志 東夷傳의 檢討

平壤說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記事이다. 同書 濊傳을 살펴보면、「濊는 南으로 辰韓과 北으로 高句麗·沃沮와 接하고、東으로 大海에 이른다. 지금 朝鮮의 東이 모두 그 땅이다. …漢武帝가 朝鮮을 滅하고 그 땅을 나누어 四郡으로 삼았다. …單單大山領 以西는 樂浪에 속하였으며、領의 以東 七縣은 都尉가 주관하였는데 모두 濊로서 백성을 삼았다. 뒤에 都尉를 없애고 그 渠師를 봉하여 侯로 삼으니 지금의 不耐濊가 모두 그 종족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예는 半島의 동부연안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單單大領은 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太白山脈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그 좌우가 모두 樂浪에 속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일단 樂浪郡이 반도내에 존재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同書 東沃沮傳을 보면、「東沃沮는 高句麗의 蓋馬大山의 東쪽에 위치하며 大海 海邊을 따라 거주한다. …北은 挹婁·夫餘와 더불고 南은 濊貊과 더불어 접한다. …漢初에 燕國亡人인 衛滿이 朝鮮의 王이 되었는데 이때 옥저는 모두 그에 속하게 되었다. 漢武 元封 2년 조선을 정벌하여 衛滿 孫子인 右渠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四郡으로 삼으매 옥저로써 玄菟郡을 삼았는데 뒤에 夷貊이 침략하여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기니 지금 소위 玄菟故府가 이것이다. 옥저는 낙랑에 속하게 되었는데、漢은 그 토지가 멀어 單單大嶺 동쪽지역에 東部都尉를 설치하였으며 不耐에서 다스렸고 따로 領東七縣을 주관하니 이때 옥저는 모두 縣이 되었다. 漢光武 6년 변두리의 郡의 都尉를 없앴는데 이때 없어졌다. 그 후 현의 渠師로써 縣侯를 삼았는데 不耐·華麗·沃沮등이 모두 侯國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東沃沮 또한 반도의 동부해안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동옥저를 상관하여 玄菟가 설치된 내용과 뒤에 동옥저가 樂浪에 속하게 되어 東部都尉가 설치된 내용은 樂浪郡이 遼西에 설치된 경우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華麗·不耐란는 명칭은「三國史記」에 新羅의 北邊과 관계된 地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同書 新羅本紀 儒理尼師今17年條 참조)

이상에서 장구하게 原文을 인용하면서 論議를 전개시켜 보았는데 매 구절이 樂浪郡의 위치규명에 중요한 史料가 되기 때문에 짧은 지면이나마 原文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Ⅲ、南新縣의 考察

지난 947號 論稿에서 帶方郡의 위치를 확인한 후 帶方郡의 7개현 중에 6개현명이 後漢과 前漢의 낙랑군의 현명과 일치하고 있음을 통하여 前·後漢의 낙랑군과 晉의 대방군이 동일지역、즉 한반도중북부를 중심으로 변천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이때「晉書」대방군條에 보이는 7개현 중에 南新縣이 있는데 남신현은「三國史記」에도 여러군데 보이고 있다.

同書 新羅本紀 婆娑尼師今 5年條를 보면『古陁君主가 青牛를 바치고 남신현에서는 보리가 岐를 連하더니 풍년이 크게 들어 行人이 양식을 싸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 (古陁君主獻青牛 南新縣麥連岐 大有年 行者不賫糧)』라 하였다.

또 同書 신라본기 我休尼師今 3년조를 보면『南新縣에서 嘉禾를 進上하였다 (南新縣進嘉禾)』라 하였다. 즉 帶方郡이 설치되기 이전인 서기 84、186년에 南新縣이란 명칭이 보이고 있다. 또 同書 신라본기 奈解尼師今 27년조를 보면『南新縣人이 죽었다가 달을 지나 다시 살아났다 (南新縣人死 歷月復活)』라 하였다. 이러한 신라본기속에 보이는 남신현의 기사를 고찰해볼때、帶方郡과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前·後漢의 樂浪郡의 위치를 지금의 平壤一帶로 比定할 수 있을 것이다.

> 三國史記속의 南新縣 記事를 고찰해 볼때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일대로 推定할 수있다

Ⅳ、結語

樂浪郡의 문제는 고조선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등 韓國上古史의 중대문제의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사 관계의 論著目錄들을 살펴보면 낙랑군을 비롯한 漢四郡을 다룬 논저들이 만족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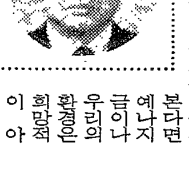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주요 史料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만을 통해 平壤說에 대한 結論을 짓고 있는것 같기도 하다. 기존 通說에 대하여 일부에서나마 反論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뿐 아니라 나아가 諸縣의 세밀한 考證과 함께 우리 民族史의 관점에 의한 새로운 史觀의 문제까지도 밀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인비의 말을 빌어 표현해 보자. 漢四郡의 설치는 분명 우리 民族史에 대한 挑戰이었으며 그에 대한 우리 民族의 應戰은 훌륭하였다.

정병준 〈문과대 사학과〉

韓國人의 恨

大学閑話



歷史란 어떤 민족 어떤 국민에게도 苦困과 시련을 안겨주고 피흘리게 하며 통곡과 회한의 오랜 세월이 지난후에야 밝고 광명찬 새 아침을 맞게 해주는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한민족이 걸어온 지난 2천년의 역사는 북으로 부터의 침략과 바다건너로부터의 海寇로 말미암아 겪어야했던 가지가지의 고통스러운 수난으로 얼룩진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해본다.

오늘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없으며 美蘇의 초강대국들이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三八線넘어 북괴집단은 三國時代아닌 二國分斷時代를 만들어 놓았다. 日本은 기회를 놓칠세라 하고 우리를 괴롭힌바가 그 몇 번 이던가. 최근에는 藤尾文部相의 망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이는 쓰라림을 겪어야 했으며 對外的開放의 압력은 1910년의 국권상실이후 최대의 國難이 아닌가 싶었을 만큼 걱정스러웠던 시기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할때가 왔다고 본다. 오늘의 현실을 살펴본다면 예나지금이나 우리의 환경은 희망적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세계사의 전환점도 마련할수있는 것이다. 몽고족은 20여만명의 소수로도 中原을 정복하고 동서양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영국도 이것과 유사한 역사적 교훈의 사례가 될 것이다.

데이비드 맥그레런드 교수는 그의 명저「Achieving Society」에서 한 나라의 융성은 그民族의 內的世界의 풍부 여하에 따라 결정되며、外的인 자원、인구규모등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 민족의 정신세계는 詩、墓碑銘、희곡、일상적 對話속에 2백년이나 미리 앞서서 표현되며 造形藝術이나 科學的 業績등으로 外部에 投射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술수준은 美國을 1백으로 할때 獨逸 72、日本 70、英佛 60미만、韓國은 1정도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評定의 근거는 發明特許의 出願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정신만이 결정할수 있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勇猛精進합시다.

〈法經大교수·공공정책〉

87年 大卒新入社員 募集

최소한 10年을 생각하는 智慧로 2000年代의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浦項製鐵은 보람과 성장을 約束하는 生涯職場입니다.

• 國民을 위한 國民의 企業입니다.
우리資産을 지키고 키우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우리모두가 主人인 会社입니다.

• 工業의 쌀을 生産하는 基幹産業입니다.
造船, 自動車, 機械, 建設, 尖端科學等 모든 産業의 發達에는 먼저 鐵鋼工業의 發展이 앞서야 하는 국가경제의 基幹이 되는 産業입니다.

• 國內 企業成長의 母胎가 되는 企業입니다.
꾸준한 成長과 技術·資本蓄積을 통하여 光陽과 浦項에 벌이고 있는 2兆원이 넘는 投資事業은 국내 중공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21C 世界鐵鋼業을 Lead할 競爭力있는 國際企業입니다.
浦項製鐵의 經營과 技術의 성공은 국제사회에서 韓國과 韓國人의 평가를 높여주었고 鐵鋼産業成功의 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 一生을 安心하고 맡길 수 있는 職場입니다.
폭넓은 經驗과 成長을 얻을 수 있고 10年, 20年을 내다보는 안정된 報酬와 福利厚生支援은 여러분에게 밝고 보람된 未來를 설계할 수 있게 해 주는 最高의 職場입니다.

一、募集分野 및 應試資格

募集分野		人員	應試資格
技術系	機械·電氣·電子 金屬·化工·土木 建築·電子計算	300名	•1958年 1月1日 以後 出生者 (碩士學位取得者 및 '87年 2月 取得豫定者는 '56年1月1日 以後 出生者) •正規 4年制大學 募集該當學科 및 關聯學科專攻者로 '87年 2月 學士學位取得豫定者 또는 既取得者 •各分野 공히 兵役畢 또는 免除者로서 海外旅行에 缺格事由가 없는 者
事務系	經營·經濟·貿易 法學·行政	100名	

二、銓衡方法

가. 1次銓衡：筆記試驗(專攻·英語)
나. 2次銓衡：面接·身體檢査·適性檢査 (1次合格者에 限함)

三、提出書類

• 入社志願書(當社 所定樣式) ……………………… 1部

四、1次銓衡(筆記試驗)日時 및 場所

가. 日時：1986年 11月 2日(日) 午前 9時
나. 場所：韓國外國語大學校

五、志願書交付 및 接受

交付處	接受方法	提出處	接受期間	受驗票交付
•各大學 學生處 •서울：서울特別市 中區 小公洞 KAL빌딩 新館 7層 當社 서울事務所 行政室 •浦項：浦項市 東村洞 5番地 當社 人力管理室	郵便接受	680-00 慶北 浦項市 東村洞 5番地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人力管理室	'86.10.10(金) ~ '86.10.24(金)	'86.10.30(木) 까지 個別郵送

六、其 他

가. 郵便接受는 登記郵便으로 하되 마감일 到着分에 限함.
나. 國家有功者로서 證明書 提出者는 關係法令에 의거 加點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接受處로 問議바람. (電話：浦項 70－3105, 3205, 3305)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한국사회구성체의 현단계

◇글싣는 차례

1. 들어가는 글(이론의 개념 정립과 그의의)
2.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주변부 자본주의론, 식민지 반봉건사회론등 기존 제사회구성체 이론의 검토
3. 기존 사회구성체이론의 비판과 한국사회 구성체론
4. 모순론(한국사회 구성체의 모순설정)
5. 계 급 론
6. 끝맺는글(한국사회변혁론의 소개와 그 방향설정)

제사회구조를 살필때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변혁을 위한 운동의 단계및 주체설정과 그 사회의 모순설정등이 정확히 이루어 질수있다. 최근 한국사회분석에 있어서도 역사의 사회발전과정을 합법칙적인 과정으로써 해명하고 사회변혁에 대한 이론적 전망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때 사회구성체 개념에 대한 이론정립은 운동론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갖게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회구성론의 주요과제들에 대해 연재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기획부>

사회구성체의 개념과 본질

특정한 현실사회 파악을 통해 변혁운동론 정립 가능

이행기에는 토대와 상부구조 불일치·多우클라드구성

이 상 옥
<불교대·불교학과>

1、사회구성체의 개념

사회구성체 개념은 역사적 사회의 객관적 운동법칙, 즉 그 사회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과 새로운 역사적 사회로의 이행을 합법칙적으로 해명해준다. 또한 사회구성체 개념은 위의 추상적인 이론적 의의와 함께 사회구성체내의 생산양식의 발전단계에 따른 한 사회의 성격(사회구성과 계급구성) 규명 속에서 변혁의 성격을 규명해내고 모순구조의 매개항을 거친 계급분석 속에서 적과 주체, 동맹, 제휴세력을 설정하고 아방의 세력배치 기획인 전선의 구축과 전략과 전술이라는 실천적 변혁운동론으로 정립되어진다.

따라서 사회구성체가 생산양식(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물)등에 비하여 역사학에 있어서 보다 유효하고 친근한 개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징은, 이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과 내용중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첫째로, 사회구성체는 특정구성체의 질을 규정하고있는 기본적 생산양식의 균질적인 지배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양식=우크라드(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총체로써 한 사회의 경제제도)의 병존과 복잡한 결합을 허용한 개념이다.

둘째로, 사회구성체는 그 외연적 범위에 있어서는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현실적 사회를 전체적, 포괄적으로 파악하는것을 가능케해준다.

세째로, 사회구성체 개념은 단순히 인류역사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사회유형을 보여 줄 뿐아니라 그들이 차례로 교체하고 중층화하여 감에따라 인류사회의 세계사적 발전이 실현되어 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와 두번째의 내용이 개개사회의 특수성과 전체성, 그리고 그 변화등에 관계되어 있음에 비해 세번째의 내용은 그들 개별 사회 상호간의 발전법칙및 계기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①토대=생산제관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말하면 여기서의 토대=경제구조는 생산제관계이지 생산양식이 아니다. 물론 이경우 생산양식에 대해서 이것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물로서 명확하게 정식화하기 전에는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었으며 Marx의 생산관계 개념이 종종 생산양식과 어느정도 동의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반대로 생산양식 개념이 생산관계와 동의어라는 것에서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통일물인 생산양식이야말로 토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사회구성체 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간의 입체적 관계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 생산력은 이 생산관계(생산력의 발전형태)와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 위에서, 또한 토대=경제구조에서는 제의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생산관계의 실체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근거로한 잉여생산물의 전유형태와 생산계급의 존재 조건이며 이것이 토대의 내용으로서 인간과 인간간의 사회적 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②상부구조및 사회적 의식 제형태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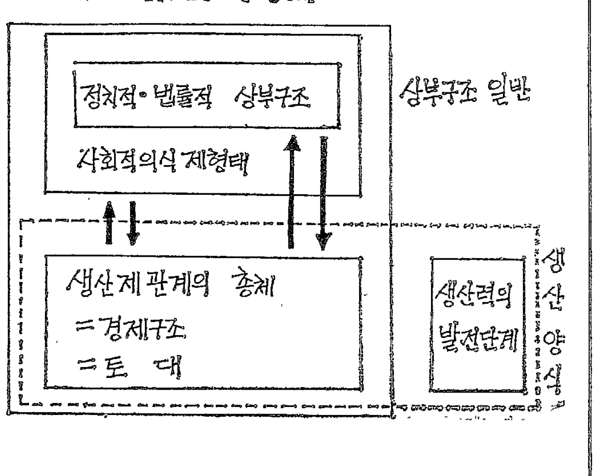
사회구성체는 토대=경제구조, 법률적·정치적 상부구조, 여기에 조응하는 사회적 의식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기본적, 물질적 뼈대로서는 사회적 의식 제형태와는 구별되며 건물로서의 토대=경제구조와 그 위에 성립하는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 특히 정치적 상부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구조에 조응하지 않는 의식형태를 상부구조 일반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제외된 것들이 경제구조·상부구조, 즉 사회구성체와 무관하고 무규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과 똑같이 사회와 상호규정적 관계에 서있다고 하겠다.

상부구조 일반중에는 지배계급의 것 뿐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것도 존재하고 변혁기에 있어서 피지배계급의 사회적의식·제기관은 새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변증법적의미에 있어서 부정되고 있고 또 부정된 것이야말로 새로운 사회의 담당자인것이다. 상부구조에 있어서 상부구조에서의 계급갈등·계급대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부구조에 있어서 비계급적이거나 피지배계급적인것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인한 위에서 계급사회에 있어서의 상부구조 일반은 계급적 경제구조를 토대로 하는 지배적·총체적 성격으로서의 지배계급적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상부구조의 규정서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선적·기계적으로 토대에 의한 상부구조의 규정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고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체의 변질에 있어서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과 경제제도의 변질은 동시에 수행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안정기의 사회에서는 규정적 정치제도및 규정적 의식형태와 규정적 경제제도가 조응하지만, 이행기(혹은 비상시)에는 상부구조 일반과 토대사이에 비조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행기로서의 사회구성체의 특징은①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혁과②물질적변혁의 2가지로 나타낼 수있다.

이상의 사회구성체에 대한서술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그림<표1>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표1] 사회 구성체



이상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한 사회의 변혁의 원동력과 추진력(기본모순)을 살펴본다음 사구체의 본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 사구체의 기본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계급모순으로 표출된다(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노·자모순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본모순이 바로 변혁의 원동력이 되고 변혁의 추진력은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간극이라 한다.

2、사회구성체의 본질

그러면 사회구성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질과 성질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질이란 대상에 내적으로 고유한 규정성이자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그 대상의 규정성 총체를 말하는 것이며, 성질은 외적으로 표현된 질이고 어느 대상의 다른 대상에 대한 관계중에서 나타나는 질이다.

본질적인 성질의 변화는 즉 질의 변화이고 대상의 규정성 대상 그것을 바꾸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본질적인 성질=질의 변화없이 개개의 성질은 다른 대상과의 관련에서 변하기도 하며 그러한 제성질의 변화는 반드시 대상의 규정성, 대상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체의 토대=경제구조의 질은 이 경제구조에 내적으로 고유하며 다른 경제구조와 구별하는 규정성, 즉 규정적경제제도에 의해 보여지는 것이다. 이 규정적 경제제도는 이 경제제도를 구성하는 다른 제성질=경제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경제제도이고 이경제제도를 다른 것이 아닌 어느 특정의 경제구조이게 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체의 정치적 상부구조의 질은 그것에 내적으로고유한 규정적 정치제도이며, 이 규정적 정치제도는 이 정치적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다른 성질=정치제도의 병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치제도이고 이 정치적 상부구조를 특정의 정치적 상부구조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체는 규정적 경제제도를 그 질로하는 경제구조를 토대로 하고 그 위에그것과 같은 역사적 본질을 갖는 특정의 규정적 정치제도를 그 질로 하는 정치적 상부구조가 조응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양자는 상호 규정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체의 이행기에는 경제구조의 질과정치적 상부구조의 질이 역사적 본질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구조의 이행지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지표는 양적비교로 할 수는 없고 경제제도의 규정으로서 나타난다. 생산양식의 지배, 경제제도의 규정의 과정은 그 정반대의 과정으로서 다른 여러 생산양식의 피종속·다른 여러 경제제도의 피규정성으로서도 나타난다. 즉 옛날에는 지배적·규정적이였지만 이제는 종속되거나 규정되고 있는 경제제도가 종속·피규정되면서 일어나는 성질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새로운 생산양식의 지배, 새로운 경제제도의 규정, 새로운 경제구조의 확립을 찾아내는 지표가 될수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의 관련에 있어서만 가치·부가가치·국민소득등의 통계상의 수치대비가 상황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것이다.

인류 역사의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그 역사발전의 법칙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급대립·투쟁을 통한 인류 역사발전의 법칙을 찾아 역사발전에 과학성을 부여하고 인간해방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구성체의 해명을 위한 열쇠는 인간 간의 관계인 생산관계에서 구하고, 이 생산관계가 사회구성체의 기본적 관계=생산수단 소유형태를 명시하고자 한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는 것은 이중의 해방이라는 신분적·인격적 자유의 획득이라 하겠다. 이 생산수단 소유형태의 자본제적 특질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관계의 내용이 바로 자본제를 자본제이게끔 하는 규정성이 되는 것이다. 주변부자본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주변부사회의 잉여가치의 항상적 수출 메카니즘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잉여의 유출메카니즘의 정착화로서의 성격이상이 아니며 생산관계의 관점을 사상하고 있다.

또한 주변부자본주의사회는 생산양식이 전일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질로하고 있으며 임노동자의 존재형태가 다양하다고 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우클라드의 유기적결합체로서 그 가운데 규정적·지배적 경제구조=토대와 조응하는 규정적 정치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탈구된 형태의 일반화된 상품생산이 특징적이라고하는 사실로 위와같은 논지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주변부자본주의론은 잉여가치 전유의 문제를 규정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구성체의 기초인 생산관계를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변부자본주의론에서 말하는 주변부자본주의에 있어서 독특한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를 찾을수 없음에서 더욱 명백해지며 자본의 속성이 국제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자본제사회를 타사회와 구별되게하는 규정적 질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는 생산관계의 모순인것이며 이 모순관계는 현상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것이다.

사회구성체의 이행기에는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가?

「예를들면 선진자본주의제국에서는 먼저 시민혁명(정치적상부구조의 부르조아적 변질)을 거치고 이어서 곧 산업혁명(경제구조의 부르조아적 변질)의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체의 부르조아적변질이 완료된다. 반대로 부르조아혁명이 결여된 일본에서는 예를들어 토대에서의 산업혁명을 거친후에 나타나는 경제구조의 부르조아적변질은 바로 그대로 정치적 상부구조의 부르조아적 변질과 사회구성체의 부르조아적 변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는 경제구조의 변질에 이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에 앞서고 있지만 여하튼 일본의 사회구성체의 변질의 완료를 위해서는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이 필수적이다. 즉 사회구성체의 변질에 있어서 정치적상부구조의 변질과 경제구조의변질은 서로 뒤얽히면서도 동시병행적이지 아니하며 사회구성체의 변질은 적어도 이러한사회구성체의 기본적 뼈대인 경제구조의 변질과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질의 양 과정의 총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최현의『사회구성체 이행론서설』) 따라서 우리는 이행기의 성격을 경제구조=토대와 상부구조의 불일치, 생산양식의 어느하나가 지배적·전일화 하지 못하고 多우클라드로 구성되어있는 시기라고 할수있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는 이행기의 특수성으로 나타날뿐 독자 적인 사회구성체로 규정할수 없다고 하겠다.

사회구성체에 있어서 정치적 상부구조의 내용인 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국가는 계급대립의 비화해성의 적대적 산물로서 계급대립의 완화로 체제유지를 위한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국가의 자본주의적 특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적 국가를 고대국가나중세봉건국가와는 다른것으로 하게하는 역사적 특질은 첫째, 법치국가라고 하는 사실이며 법이란 질서와 규칙을 법조문화하여 사회의 전성원에대한 무차별한 적용이라고 하는 형식적 보편성이다. 그리고 이러한형식적 보편성을 통하여 근대자본주의국가가 계급지배와착취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상품경제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둘째, 국가권력이 법의 집행권력—사유재산적 법질서의 유지·집행으로서 조직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관료제 집행권력이 국가권력의 실체이며 자본가 계급 지배체로서 그 내용은 군대·경찰·관료인 것이다. 관료제란 민중 위에 서서 민중에게 등을 돌리고 민중에게 분리되어 있는 중앙집권화된 정부권력의 강제조직이며 계급적 권력기관인 국가제도의 일익으로서 민중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그국가권력이 집행의 중심에 해당하는 일군의 상층조직이다. 세째, 군대·경찰·관료로 이루어지는 행정집행권력의 직접적담당자가 반드시 자본가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즉, 집행권력의 담당자가 어느 계층으로 이루어지든간에 그것이 사유재산적 법질서의 유지기능만 갖는다면 자본가는 상품경제적 가치법칙을 통해서 계급지배와 착취를 실현하게 되는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지배계급과정치적 지배계급의 불일치의 가능성을 보게되며, 상부구조 즉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답답해서 하는 말

鹿野苑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진찰을 받으러 가겠다고말한다. 의사는 오늘 오후엔 시간이 없고 내일은 당신을 진찰할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집과 병원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결코 의사의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한다는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시간을 절약하므로 의사도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그 자신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에릭 프롬은 인간은 이 유일한 현실을 바탕으로 자아도취적 도그마에 빠진다고 단언했다. ▲우리는 이러한 자아도취적 도그마에 사로잡혀 자기과대망상에 빠진 위정자들을「독재자」란 이름으로 종종 보아왔다. 나찌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스페인의 프랑코 역시 그랬으며 가깝게는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그랬다. 또한 해방이후 이나라의 몇몇 위정자가 그랬던것 같다. 자신만이 그 民族을, 그 國家의 장래를 책임질수 있다는 도그마에 빠져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정당화시키고 法制化하여 權力을 휘두르는 그들은 후세 歷史가 자신들을 심판해줄 것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역으로 후세역사가들이 자신들을, 그나라를, 그 민족을 망친 元兇으로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려들지 않는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며 그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한다. 오직 자신의 아집을 실현할수 있는 체제를 고수하려고 혈안이 되고 자신의 카리스마적 환상이 파괴될까봐 전전긍긍해 한다. 그리고 불안해한다. ▲우리나라는 民主主義국가이다. 결코 부정될수없는 사실인 것이다. 자신의 도그마를 거부한다고해서,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다고해서 합법성을 가장한 권력을 내세워 카리스마적으로 탄압하려는 작태가 성행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체제라 할수없다. 오늘날「지도자」된 자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지배자」의 도그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 이 민족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일게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榮>

社員募集

1. 募集部門 및 應試資格

募集部門		人員	應試資格
事務職	經營學·會計學 經濟學·貿易學 法學·行政學	○○○名	1. 正規 4年制大學 募集 該當學科 專攻者로 87年 2月 學士學位 取得豫定者 또는 旣取得者 2. 1959年 1月1日 以後 出生者
技術職	化學·化工學 機械工學·電氣工學 電子工學·纖維工學 食品加工學·冷凍工學 養殖學·農化學 飼料學·畜産學		
研究職	高分子工學·有機合成		1. 該當部門 碩士學位 所持者 以上

※各 部門 다같이 兵役義務 畢 또는 免除者

2. 銓衡方法

① 書類審査 ② 筆記(英語, 常識, 論文) ③ 面接

3. 提出書類

① 入社志願書 및 自己紹介書(當社所定樣式) ……………………各1部
② 最終學校 全學年 成績證明書(研究職은 大學成績 包含) ……………………各1部
③ 學位, 資格證寫本(研究職에 限함) ……………………各1部

4. 願書交付 및 接受

■交付期間 : 86. 10. 18(土)~10. 23(木) 09 : 00~18 : 00(公休日 交付)
■交付場所

本 社	(743) 7711	서울特別市 鍾路區 蓮池洞 263
釜山事務所	(463) 3841~6	釜山直轄市 中區 中央洞 4街 85-8
大邱事務所	(753) 9901~8	大邱直轄市 東區 新川洞 89-1
大田事務所	(42) 4561~4	大田市 東區 佳陽1洞 288-3
光州事務所	(525) 9911~7	光州市 北區 新安洞 5-3
馬山事務所	(93) 2661~5	馬山市 梅城洞 462-3
蔚山工場	(72) 7611~9	蔚山市 梅岩洞 360
全州工場	(72) 1234~42	全州市 八福洞 2街 339

■接受期間 : 86. 10. 20(月)~10. 23(木) 09 : 00~18 : 00
■接受場所 : (110) 서울 鍾路區 蓮池洞 263 (株)三養社 總務部

5. 其 他

① 募集人員 中에는 系列會社(鮮一포도糖 株式會社) 人員이 包含되어 있음
② 國家 報勳對象者는 關係法에 의거 優待함
③ 郵便接受는 10月23日(木) 18 : 00까지 到着分에 限함
④ 其他 詳細한 事項은 當社 總務部 人事課로 問議바람
電話 : 743-7711, 744-7711 交換 307, 308, 309

1986. 10.

株式會社 三養社

主要生産品 : 雪糖 • 配合飼料 • 水産物 • 畜産 • 이온交換樹脂 • 絹紡糸 • 폴리에스텔纖維

국제금융위기와 巨視經濟政策

제3세계 국가들의 누적외채 문제가 다시 심각한 국면을맞이하고 있다. 세계은행은「개발보고서」에서 앞으로 채무국들은 이자지불만을 위해서도 무역흑자를 2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의 침체경향이나 선진국의 新보호무역주의 추세로보아 이는 매우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상이현실로 나타날경우 대만을 제외한 모든 개도국들이 파산의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세계금융시장의 위기와 거시경제정책, 그리고 그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權五哲
<경상대교수·거시경제학>

19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 이후 世界經濟의 침체, 국가간의 국제수지 不均衡의 심화로 개발도상국들은 만성적인 外債問題로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外債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不安과 主要國通貨 환율의 극심한 불안정 등으로 국제통화질서의 安定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크게 해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학자가 큰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最近에 Milton Friedman, Allen Blinder등 일련의 學者들은 주요국간의 巨視經濟政策에 대한 상호조화가 결여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있다.

本稿에서는 주요국간의 거시경제정책에대한 조화결여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를 살펴본후에 외채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개선할수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대처해야할 정책대응을 제시하고자한다.

(1) 主要國의 巨視政策과 新보호주의

최근 우리는 新보호주의(New Protectionism)란 용어를 자주 듣게된다. 新보호주의란 수입장벽을 쌓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문제인 실업, 저성장, 산업침체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상주의의 재현이라고 말할수있다.

이러한 新보호주의는 급기야 국제금융 시장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국제간의 자원분배를 왜곡시키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성장을 위협하게되며, 선진국들에게는 경제구조적 조정을 저해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IMF (국제통화기구)에의해서도 이미 이러한 위험은 경고된바 있다.

그러면 이러한 新보호주의와 국제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요국의 거시경제정책이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James Tobin등에 의해서 지적된바가 있다.

1981년에 美國의 레이건(Reagan) 행정부는 긴축적인 金融政策과 팽창적인 財政政策을 혼합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위 아써 레퍼 (Arthur Laffer) 교수를 중심으로한 공급중시경제학理論을 레이건행정부는 경제정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레이건행정부의 財政金融政策은 막대한 政府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자율은 높은 수준에서 머물게 되었다. 美國內의 이자율이 他國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되자 많은 資本이 美國內로 유입되게 되었고 따라서 그당시의 美貨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약소국에 대한 무역압력 심화
美경기후퇴·油價폭락등이 최대 불안요인

공급경제학자들은 美貨가치가 높게되자 美國이 다시 世界에서 최강국임을 과시할수 있는 기회라고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띄웠다.

그러나 美貨가치가 과대하게 높다는 것은 역으로 美貨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계산해야 된다. 다시말해서 供給經濟學者들은 不安을 국제수지面에서 올수있는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美貨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美國의 수입이 증가되고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美國은 국제수지面에서 큰 적자(Deficits)를 보게된다.

그래서 1986년9월 현재 美國의 무역적자폭은 사상최대의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것을 시정하기위해서 現在 美國은 美貨가치를 감소시킬려고 노력하고있고 우리나라에대해서는 원貨평가절상 언급및 市場개방압력등을 행사하며, 관세(Tariff)

「베이커구상」은 긴급구조책에 불과
「3低」현상 호기삼아 경제구조 개편 서둘러야

外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제한을 가함으로써 급기야 新보호무역주의란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게되었다.

또한 美國은 日本·대만에 대해서 新보호무역주의를 적용시키고있고, 이러한 현상이 長期에걸쳐서 일어날것이라는 전망이고보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현명하게 대처해야만할것이다. 무턱대고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미국당사자들과 통상협상을 할 때에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한가지씩 현명하게 협상에 임해야한다.

원貨평가절상 요청을 할때면 환율이 외환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국의 관리환율제도가 美貨의 가치를 이미 충분히 계산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한다. 이러한 것은 최근 Milton Friedman 교수도 분명히 밝히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관세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제한을가하고 한국에 대해서 시장개방을 하게 된 것은 자국의 재정및 금융정책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 해야한다.

사실 James Tobin도 美國 레이건行政府가 시도했던 긴축적인 金融政策과 팽창적인 財政政策은 뒤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하고있다.

(2) 國際金融市場의 위기와 개선방안

1971년8월 美國「달러」貨의 金兌換 중지로 사실상와해되기 시작한 「브레튼우즈」체제는 1976년 IMF협정개정을 통하여 金을 廢貨시키고 변동환율제도를 공인함으로써붕괴되었으며,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킹스턴」체제로 이행되었다.

그런데 1970년말에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으며 국제수지는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과도한 외채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은 불안하게 되고 주요국 통화 환율이 극도로 불안하게 되는등 국제금융시장은 안정기조가 뒤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지속으로 국제유동성 수급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유동성 배분상의 왜곡현상, 그리고 환율불안에 따른 대외준비자산 가치의 불안정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세계경제는 경색되고 국제간의 자원분배문제와 저성장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①국제유동성제도의 개선과함께 SDR (특별인출권)의 역할강화 ②환율제도 개선논의, ③290억달러에 상당하는 추가 차관을 멕시코등 外債國에게 해주는 베이커방안(Baker Plan)등이 심각하게 논의되고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차례대로 간단히 살펴보기로한다.

먼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SDR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이견이 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다같이 SDR 役割의 강화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국제금융시장으로 부터의 借入준비자산으로는 장기적인 대외준비자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뿐 自己준비자산인 SDR의 절대규모를 확대하는데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개도국은 현재의 국제금융시장 수급사정이 主要先進國의 거시경제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뿐 아니라 유동성의 편재및 개도국의 만성적인 外債문제로 국제유동성이 시장기능만으로 원활해질수 없으므로 SDR의 절대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反하여 선진국들은 SDR의 추가창조및 배분이 인플레를 유발할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조정이 없는한 근본적인문제해결이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취하고있다. SDR을 국제통화제도의 중심通貨, 즉 本源通貨로서 활용함으로써 근본적인 국제 유동성 조절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은 現在 세계준비자산에서 SDR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美「달러」貨등 주요준비통화에 대한 규

창출하면 국제유동성의 과잉공급으로 국제통화제도의 不安定을 야기시킬수 있으며 또한 통화적인 목적이 아닌 재원이전 목적으로 SDR이 창조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IMF는 현재 국제유동성조정장치의 開發, 國家間 유성성의 공평한 配分, 「리저브(Reserve)」가치의 安定化 추진등에 주안점을두고 先進國과 개도국의 주장을 수렴한 국제유동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모색하고있다. 그러나 SDR역할의 개선문제는 환율제도및 IMF의 감독기능 개선등 전반적인 국제통화제도의 개선문제와도 관련되어있을뿐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가 엇갈리고있어 개선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환율제도의 개선을 빠뜨릴수가 없다. 先進國을 대표하는 G-10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G-24는 각각 현행 환율제도에 관하여 相反된 평가를 하고있다. G-10 및 G-24의 양「그룹」을 포함하여 現行 환율제도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그동안 단기적으로 환율이 불안정하게 움직였으며 환율제도의 개선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相反된 입장을 취하고있다.

외채를 안고있는 개도국들은 주요선진국들에 의해서 적용되온 거시경제정책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때문에 환율불안이 초래되고 급기야는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10을 중심으로한 현행환율제도를 옹호하는 국가들은 현 제도가 국제수지조정의 증진, 해외「인플레」의 차단, 국가간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국내통화정책의 촉진 및 내외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대응등의 기능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評價유지 의무와 같은 정책적 구속력이 없어 各國은 정책의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무시한채 自國의 이익만을 위한 財政金融政策을 추구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개도국은 주장한다.

변동환율은 보호무역주의를 탄생시킬만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변동환율제도는 각국의 정책변화·환투기·언론기관의보도등의 단편적인 사전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 변동폭이 클 수 있어서 투자가및 무역업자들의 金融「리스크」를 증대시킬뿐 아니라 국제交易을 위축시킬 소지가 충분이 있다.

또한가지 빼놓을수 없는것은 변동환율은 자원배분의 왜곡, 交易財 산업부문에서의 경기변동에 따른 失業증대및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등을 초래시킬수 있다. 그래서 G-24는 목표환율제도(Target Zone System)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목표환율제도란 환율변동가능폭, 환율대의 수정정도, 환율대의 공개성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G-10은 현행 변동환율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신속히 조정하여 왔으며 고정환율제도에서 야기되었던 국제수지상의 非대칭성(Asymmetry)도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변동환율제도는「인플레」의 세계적 파급을 적절히 차단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각국의 재정금융정책이 「인플레」를 초래할 위협이 존재하므로 변동환율제도는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고 G-10은 주장한다.

세째로, 외환시장의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무가 없으므로 자본이동 대신 환율변동으로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외부문을 통한 本源通貨의 변동이 감소하여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대됨으로써 국내여건과 직접 부합되는 통화정책을 탄력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영할수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G-10은 대체로 現行 환율제도를 유지하되 다소의 기능개선만을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어서 G-24와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IMF이사회는 환율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과도한 外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금융시장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現변동환율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G-24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운용상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율제도가 보완되어야 할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각국은 환율의 지속적 安定을 위해서 一貫性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各國이 相互調和를 이루어야할 것이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한 財政金融政策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최근에 美國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요청한 원貨평가절상은 美國政府가 해서도 않되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政策을 써서 인위적으로 원貨를 평가절상 해서도 안될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IMF의 갈독기능을 강화시켜서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다.

특히 G-24를 대표하는 개도국들은 世界的인 무역및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제통화및 金融의 불안은 주요 선진국들의 自國利益만을 생각한 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이들 國家에 대한 IMF의 갈독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하고있다. G-10도 IMF의 갈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데에 見解를 같이 하고있다. IMF 갈독기능 개선방향으로 G-10및 G-24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현행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내의 경제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점을 감안하여 IMF는 환율정책을 갈독할것은 물론이며 동시에 각국의 국내경제정책도 환율불안을 초래할수 있는것이면 갈독해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F의 갈독제도 개선문제는 기본적으로 환율제도 개선문제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제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있는 문제임을 지적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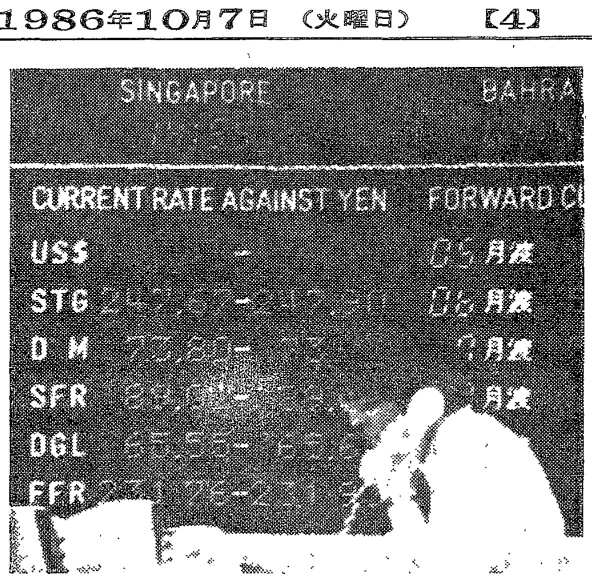
(3) 韓國의 대응政策

이상에서 살펴본바와같이 국제금융시장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한국의 순외채를 우리는 금년초까지 경협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3저현상을 맞이하여 순외채는 조금씩 감소되고있는 아주 다행스런 경제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가 조금생겼다고 소비풍조에 빠져들기만하고, 경제구조의 개선과 첨단기술의 개발에 소홀하게 된다면 얼마되지않는 기간내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될것이다. 3저현상은 外生的인 요인이다. 이미 미국은 보호무역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있다.

向後 우리나라의 경제운용은 물가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는쪽으로 계속 촛점을 맞추어야한다. 그리고 단기외채도 차츰상환해야한다. 단기外債는 현재발생하는 흑자로 갚아야하며 또한 기업의 해외투자도 촉진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기업역시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경쟁시대에 이길수 있도록 기술투자와 개발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빚이 많은 기업은 재무구조로 건실하게 해야만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앞으로는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美國의 저명한 學者들은 앞으로 이자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원유값도 서서히 오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3低현상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外債가 비교적 많은 우리나라는 현시점을 好機로 삼아서 이자율이 높은 단기외자는 상환하고 기술개발을 서둘러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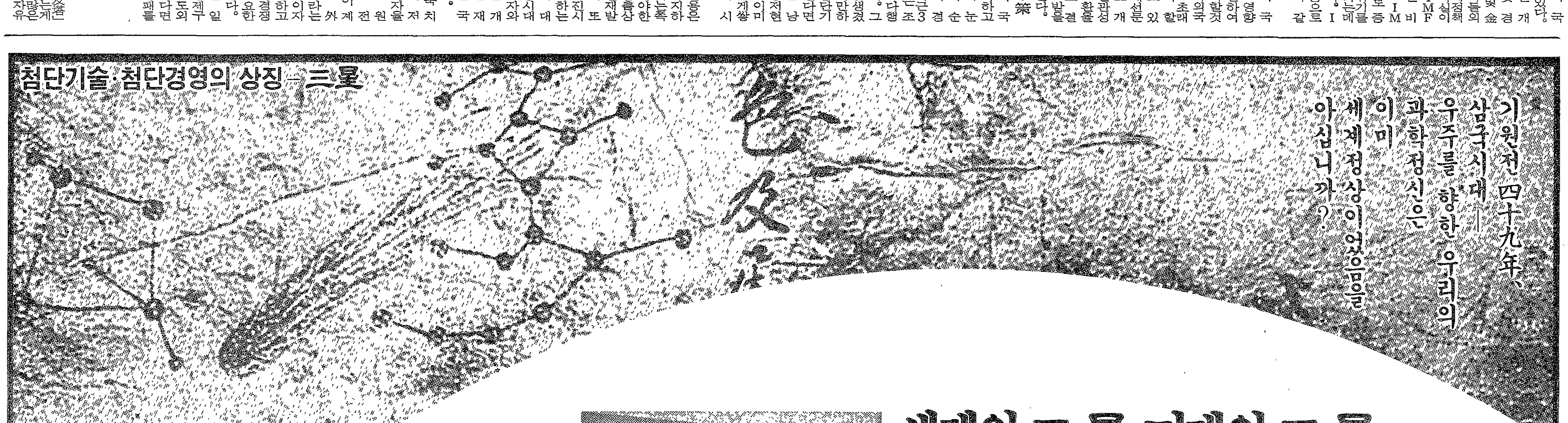
소위 3低현상으로 인한 일시적 무역흑자에 만족, 경제구조와 무역구조의 개선을 도외시하고 소비풍조로 젖어든다면 향후 한국경제는 큰 낭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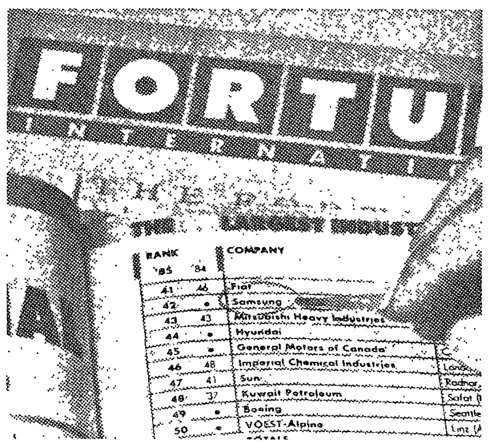


▲美國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원貨평가절상및 시장개방 압력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사진은 85년, 서울에서 열린IMF·IBRD총회광경)

알림

이번號에는 컬럼「東友搭」이 독자 여러분의 투고부족으로 게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주제는 자유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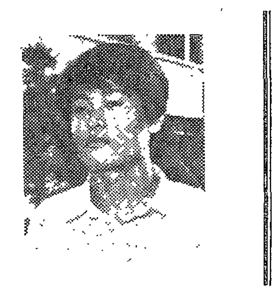


세계의 三星, 미래의 三星
세계42위의 三星, 당신에게 그 미래를 맡깁니다.
첨단경영, 첨단기술로 풍요로운 21세기를 보장하는 三星—
三星은 민족과 함께 성장해온 뿌리깊은 기업으로 끊임없는 기업변신을 통해 세계50대 기업중 일약 42위로 부상했읍니다. 그러나 三星의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읍니다.
반도체·전자·컴퓨터·광통신·유전자공학·항공우주산업·신소재등의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의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 원동력은 바로 젊은 당신의 창조적인 두뇌입니다.
인재를 아끼고 인재를 키우는 三星과 함께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三星

※ 이것은 1664년 10월 28일의 혜성 관측기록—
우리의 혜성관측기술의 역사는 BC 49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갑니다.
BC 49년부터 AD 908년에 이르는 약 1천년동안의 혜성관측은 모두 53회.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이 기록은 중국 및 서양의 그 어느 기록보다 정확하고 풍부하여,
세계 고대 천체관측기록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료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美國의 조장과 日本의 편승

——日本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부쳐



金在善 <문과대 사학과>

I、序

얼마전 일본의 건국기념일에 일장기를 앞세우고 동경시내를 누빈 수십대의 우익 전차들은 일부 신및 시민단체의 반대데모를 [illegible]아혀 버리면서 군가와 일본국가를 요란하게 방송하고 다녔다. 여기서 보여준 구호는 自主憲法改定·尊皇愛國등 기존노선에다 국방력충실강화등이 덧붙여져 재무장촉구의 외침을 표면화 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움직임은 미국의 극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의역활을 증대시키는 일과도 일맥 상통한다.

이는 미국의 대외팽창주의의 종속적인 군사동맹국으로서 자기를 확립시키고 미국의 핵전력 뒷받침하에 증대된 군사력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자국의 지배력과 이익을강화시켜 나가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는 결국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대위협이자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있다.

II、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속의 일본부흥

戰後·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아시아에서의 정책을 바꾸어야만 했다.

즉 한반도·필리핀·인도지나반도 그리고 일본에 대해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1947년 필리핀과 군사원조협정을 먼저 체결했다. 특히 일본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의 강화와 군사적강국으로의 부활에의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軍事的·經濟的 거점화로 삼고자 하였다. 이렇게하여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따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한국전쟁·월남전확대등에 의한 군 특수경기를 통해 생산재중심의 중화학공업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1960년 후반부터 세계경제질서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한 美國은 아시아에서의 방위비를 일본에로의 분담과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했다. 즉 종래 미국이 주도하던 동남아진출을 일본이 되맡으면서 이지역에 대한 일본의 진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그것은 특히 掠奪的인 性格을 띠고 나타났다.

그일환으로 60年 미일상호협조 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부터 일본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군사·경제대국인 美國의 從屬的同盟者로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역으로 서서히 성장하였다. 다시말해 미국의 극동정책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다시 지배력을 확대코자 하는 일본은 소위 청구권배상협정 체결로부터 시작하여 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월남·대만 그리고 한국에로 자본진출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 배상지출은 현금지불이 아닌 용역·자재·플랜트건설등 기술과 현물공여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일본과 배상국사이의 소위「경제협력」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에의한 새로운 아시아 지배구조의 창출의 단초가 주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民族主義 정립이 우리의 과제

日本、자국기업 보호위해 군사력동원도

이후 계속되는 거대독점자본에 의한 일본의 동남아진출은 상품무역과 공공산업차관등의 엔차관과 직접투자등의 엔차관을 양적증대를통해 이지역에서의 엔화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본독점자본의 내적요구에따라 경제협력, 즉 무역 원조 투자면에서 소위 대동아공영권의 재구상인 엔경제권을 형성시켜나왔다.

III、자주방위론을 근거로한 일본의 재무장

1970년대의 자원민족주의의대두와 이에 연이은 자원인플레 속에서의 장기적인 세계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일본독점자본은 에너지자원공급의 안정적확보와 상품자본시장의 유지 확대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급속한 군비확장·군수산업혁신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요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일본은 신군국주의에로의 전환은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의 재무장화를 통한 군사대국화 즉「新軍國主義化」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대행할수 있을 정도로 방위력증강을 요청하는 미국의 끊임없는 요구를외적조건으로하여 촉진되어왔다.

미국의 극동정책은 일본을 그주요축으로 하면서 한국을 여기에포함시키는 집단군사안보 체제의 구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곧 세계경제질서에서의 힘의 상대적 열세화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美國의 政策은 닉슨으로부터 포드, 카터를 거쳐 한·일간의 직접적인 군사협조체제의 구축을 강조하는 레이건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왔다. 이것은 일련의 한·미, 한·일, 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되어 사실상의 韓·美·日 삼각군사동맹체제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美·日동맹관계의 재확인과 방위력증강을 주장해온 나까소네(中曾根)는 일본의 에너지 자원공급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1천해리의 방위와 이의 일환으로서의 4해협봉쇄정책 수행을 위한「대소방어전략」으로서 美·日同盟體制와 韓·日군사협조체제를 확고히하고 또 여기에 상응하는 수준에 까지 일본방위력을 증강시킬것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日本은 평화헌법9조에 명시한 전력보유금지조항을 무시하고 50년 8월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54년 미 경찰예비대가 육·해·공의 3자위대로 개편, 강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증강은 방위력증강5개년 계획에의해 구체화되며 이 계획이 끝나는 87년에는 일본군사력은 미·소를 이은 세계3위의 군사력을 형성하게된다. 이러한 일본군사력의 증대는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한 일대 위협이며 일본이 산·군복합체를 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방위력증강계획에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일본의 방위산업은 현재 천5백개社가 방위청조달본부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와같이 급속도로 성장한 일본의 무기산업은 무기수출과 방위력증강 이라는 두가지 수레바퀴속에서 세계 군사대국의 대열로 뛰어들고 있으며 세계최강을 다투는 소련을 대상으로 4해협봉쇄를 공언할수 있을 정도로까지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와 일본독점자본의 지원아래 급성장한 일본의 군수산업 개발은 이제「對美軍事技術提供」등을 약속할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기술개발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일본의 무기산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바침하는 일본 독점 자본으로부터는 보다 큰 시장을 위한 활로타개의 요구가 주어질 것이다.

이와같이 고도성장정제와 결부되어 군사력증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의 독점자본은 불황의 만성화등 위기의 80년대를 맞아 종합적위기 관리지배체제를 지향하면서 신군국주의로 자기변신을 하고있다.

이는 구체적으로「군사2법」즉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 그리고 武力民族主義者 中曾根을 등장시킴으로해서 노골적인 자기전개를 맞이하게 되었다.

매파수상 中曾根이 곳곳에서 공언한 무기·방위안보 개헌, 힘의 외교등의 적극발언은 군사력과 이에 기초한 힘의외교의 적극적 표명으로서 일본이 동남아 주변국가들의 깊은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군사대국, 즉 新軍國主義化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IV、日本의 新軍國主義가 韓國에 가지는 意味

일본의 이러한 신군국주의는 군사기구의 복고적 강화, 사법의 복고화라고 하는 기구와 제도상의 여러 조치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 문화·교육·사상 전반에 걸쳐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①일본을 축으로 하는 韓·美·日 삼각안보체제의 구축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②고도경제성장에 의한 산업구조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독점자본의 요구와 ③공업화정책을 수행하는 박정권의 외자도입욕구가 서로 일치되면서 한국은 1965年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잇따라 대일의존적 경제협력과 韓·美·日 삼각안보체제가 形成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소위 한·일경협을통해 일본독점자본은 한국에의 자본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교정상화以後 3백50억달러의 對日逆調를 나타내고있는 무역구조와 차관 이자, 직접투자등에의한 과실송금등의 경제잉여의 대일유출메카니즘을 構造化시켜 결국 한국의 경제를 일본자본의 지배속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경제적침투로부터 비롯된 일본의 한국진출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요구에의해 일본자본이 한국의 군수산업에 대거 진출할 수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되고 종래 경제중심의 의존관계에서「안보경협」으로 표현되는 군사적인 성격이 첨가되어 결국 일본의 신군국주의화에 의한 군사·정치적종속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하여 일본은 군수산업을 포함한 한·일경제협력과 대한해협 봉쇄를 위한 한·일양국의 공동작전의 필요성, 그리고 팀스피리트작전

작금의「軍事大國化」는 한반도 위협요소로

지의 수행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기제공등에 의해 한국의 軍事·政治的從屬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에 의한 한국의 종속 가능성은 첫째,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1천해리의 해상교통로를 방어한다는 일본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말래카해협까지의 해양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되며 둘째, 이 해상교통로 방위정책의 일환으로서 소련의 극동함대의 봉쇄전략을 위한 대한해협봉쇄 전략은 소련에 대한 위협이기 이전에 한반도에 대한 위협으로서 전략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대한해협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美國의 요구를 의적조건으로 하고 日本국내독점자본의 요구를 내적조건으로 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일본의 신군국주의화는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 아시아의 盟主로서 동남아지역에 대한 자원과 상품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제 군사적 지배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작전책임의 인수, 즉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이후 일본군의 주둔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만일 한국에 反日的성격을 갖는 정권이 들어섰을때 재무장된 일본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올것인가 하는 것도 촛점이 될법한 문제다. 이경우 일본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獨島占領, 大韓海峽封鎖,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한국에 진출한 일본자본의 보호를위해 우세한 軍事力으로 反獨立 保護國化를 감행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日本으로하여금 한국에 대한 신군국주의적 침략을 가능케하고 또 이것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국내적 조건이 없지않는 않다. 그것은 다름아닌 대외의존을 자기논리로 하는 한국의 경제구조 바로 그것 하나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생존의 문제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우리민족이 역사에서 살아남느냐 그렇지않으면 소멸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할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한 것이다.

교원양성제도 개선 시안을 보고

高校教師도 碩士라야 한다니

김 경 진 <사범대 수교과>

교육은 나라의 百年之大計라는 명제만큼이나 장기적이고 먼 안목을 내다보아야 한다. 지난달 23일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교원양성제도개선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수있다. 그 하나는 교사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직의 선발요건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되기전에 준비단계로1년간의 수습교사제를 신설하여 이 기간 동안 교원으로서 적성이 맞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교원으로 선발, 임용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전문대 졸업이상이면 가능했던 유치원 교사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로 강화하며 고교 교사 임용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에서 석사학위 취득자(6년)로 높이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 입학시험 지원자에게는 중앙교육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입학 사정에 반영, 선발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사범계 대학 진학 희망자에 대한 현행의 시도교육감및 학교장 추천제를 한층 강화해 교직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만 사범계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등이다.

이 시안은 교원지망생의 선발에서부터 양성, 임용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및 엄정한 선별등에 주안점을 두고 교원의 정예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안이 의도하는 바는 교원의 정예화로 우리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일거에 타결한다는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안은 현실에 대한 뚜렷한 인식없이 편의적이고 관료적인 색채가 짙은 환상적 청사진을 그려낸 느낌이다. 교원 자질 향상이나 수급조절을 원칙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격요건은 교원을 지망하는 유능한 인재를 타분야로 쫓아버리는 逆結果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교사들의 학력이 높아지면 교육의 질도 자연히 상승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고학력 인플레를 부채질 할 뿐아니라「실력」보다는「학력」을 중시하는 풍조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고학력과 교육비는 서로 상승작용을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와같은 시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가 스스로 학문의 뜻을 두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권장해야할 일이나 교사직을 아예 고학력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교사직은 일반 직업과는 달리 전문화와 동시에 새 세대를 키운다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그러기에 이는 천직의 뜻을 항상 새겨본는 자리이다. 이러한 사명의식과 인간애가 고학력만으로 고양되어 질지가 의문스럽다. 이와같은 현직 교사들이나 교사를 지망하는 교원지망생들에게 불안과 좌절감을 안겨줄 우려가 크며 간판주의 교육의 만연이 더 확대될 소지가 깔려 있다.

더우기 대학원 교육이 가지는 본래의 성격을 격하시켜자격증발급을 소화하는 목적으로 그 곳을 활용하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교사나 교수의 자질이 중요하지 학위가 앞설수는 없다. 학위는 연과구정의이 정표이지 그자체가 교육과 학문의 목표는 아니다. 더구나 현재 예비교직자를 양성하면서도 그들을 모두 교사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같은 시안은 더욱 납득하기힘들다.

이와함께 교직지망자의 선발과 양성, 임용에 지나친 정부통제가 가해지는 것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사범계 대학의 진학자에 대한 적성평가가 2세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볼때 물론 필요하다. 작년 순위고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나타난 문제만해도 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원의 자질개선을 위해 기존교육 기관으로는 그 가속화가 어렵다면 이 해결방법으로서 기존교육기관에 대해 문제점등을 검토 수정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양성제도와 교원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신설하였을뿐 현존하는 제도 정비와 운영내실화를 외면하고있다. 대학교육이 학문탐구의 장과 사회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학 4년의 교육을 마친 사람은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교사직이 전문직이고 동시에 새세대를 키운다는 사명감으로 비추어 볼때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교육과정속에서 현지 교육에적응하기 위해「교생실습」을 실시하고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현직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평등임용제도로 기회까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안은 지난 85년5월 사범대학 인원감축의 문제, 85년 순위고사의 사실상 폐지를 미루어 볼때 현 사범대학을 올바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그 반대현상이 가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 시안중 엄정한 평정척도에 따라 면접이나 표준화된 검사방법을 통해 교직적성 평가시험을 치러 이를 입학사정에반영한다는 개선책은 교직을 선호하는 일반지원자들의 기피현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많다.

교원의 사회-경제적처우문제등으로서 교직 을기피하는 현실에 선발 기준의 강화와 교육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거기에 덧붙여 수습기간 1년을 부여한다면 누가 타분야보다 뒤떨어진 처우를 가진 교직을 선택할 것인가? 교원의 자질향상과 적격자 엄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수도 있으나 이는 우수학생의 사범계 대학 진학기피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 객관적인 적성평가라는것은 그 평가가 일정한 적정, 즉 경향을 나타내는 참고자료일뿐 절대적이고 완전히 객관적인 척도가 될수없다.

그럼에도 이에대한 요건을강화한것은 과연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어떻게 마련할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 된다.

설령 그런 평정척도가 가능하다해도 그것이 공정하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한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참인간과 참사회의 형성에 있다면 교육에대한 지나친 정부통제는 교육을 사회통제의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배제해야한다.

교직은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교원으로서의 품성과 적성을 갖춰야한다. 따라서「교원양성제도의 개선시안」이 교사의 자질향상과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사명감을 갖은 교사의 사회·경제적 처우의개선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할것이며 그것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교직, 종사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개선책이어야 한다. 또 우수한 인재들을 교직에 많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교원양성제도 개선시안」도 이와같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화학공업을 선도하는-럭키

人間·技術·未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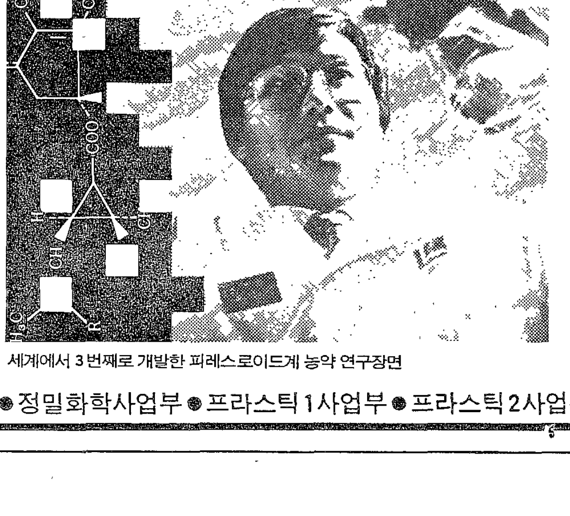
럭키금성

럭키가 이룩한 첨단기술의 결실—
高分子化學·精密化學·遺傳工學

고분자 화학

컴퓨터·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분야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정밀화학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한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연구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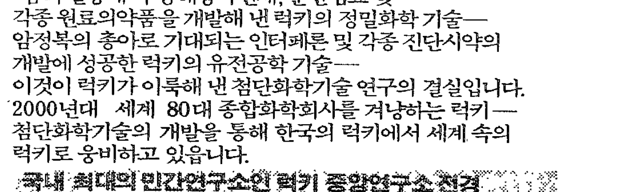
유전공학

첨단 유전 공학 기술로 개발한 암 정복의 총아 β·γ 인터페론

한국의 럭키에서 세계 속의 럭키로—

철보다 가볍고 더 강한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을 개발해 내고
각종 첨단신소재의 개발에 성공한 럭키의 고분자화학 기술—
'꿈의 살충제' 무공해농약원제, 분산염료 및
각종 원료의약품을 개발해 낸 럭키의 정밀화학 기술—
암정복의 총아로 기대되는 인터페론 및 각종 진단시약의
개발에 성공한 럭키의 유전공학 기술—
이것이 럭키가 이룩해 낸 첨단화학기술 연구의 결실입니다.
2000년대 세계 80대 종합화학회사를 겨냥하는 럭키—
첨단화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한국의 럭키에서 세계 속의
럭키로 웅비하고 있읍니다.

국내 최대의 민간연구소인 럭키 중앙연구소 전경



럭키

럭키의 8개 사업부 ● 화성 1사업부 ● 화성 2 사업부 ● 정밀화학사업부 ● 프라스틱 1사업부 ● 프라스틱 2사업부 ● 생활용품사업부 ● 화장품사업부 ● 의약품사업부

鄕土史学 그 脈을 짚는다 <5>

1. 전래동화의 중요성

「내가 인생의 불변 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슈트라우스베르크 대학의 학창에서가 아니라,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듣던 옛날얘기 속에서였다」

이것은 시성 (詩聖) 괴테의 술회이다. 전래동화가 성장하는 유아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이며, 그리고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증언이 되리라 믿는다.

孫東仁

<인천교대·교수>

그런데 오늘날 아동들은 창작동화보다도 전래동화를 더 선호한다.

2. 전래동화의 수난

한편 민담이나 전래동화는 그 민족의 무형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그것에는 옛사람들의 얼과 삶이 진하게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형문화재가 오늘날 순탄하게 보존 계승되지 못하고, 갖은 핍박과 수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인멸 (湮滅) 되거나 변형되거나 천대되는 비운을 겪고 있다. 문화민족으로서 실로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침해 (侵害) 의 복병 (伏兵) 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매스 미디어의 침해

오늘날 매스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전래동화가 아동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전래동화가 다 순수한 원형동화요 건전한 동화라는 보장은 없다. 그 증거로 1976년 1월25일 공영방송을 통해, 비건전한<동자삼 (童子蔘) >이 극화되어 방송되었을 때, 우리는 색깔이 짙은 거부반응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산간벽촌의 촌로(村老) 들이나 아동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전래동화만을 권위시하고 참된 것이라 믿고는 도리어 그 지방 고유의 민담이나 전래동화를 천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로 인해 그 지방의 민담이나 전래동화는, 차차 인멸되거나 퇴색 내지는 경원되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② 일일 문화권의 침해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 문화권에 들었다. 이것은 경하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문화에 큰 암영 (暗影) 을 던져 주었다. 중앙집권제의 바람은 산간벽촌까지 세차게 풍미하여, 지방 고유의 전통문화를 밀어 내었다.

더우기나 수도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 그 침해가 우심하다. 도시 농촌의 구분 없이, 도시화의 회오리 속에 생활이나 정신문명이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가졌던 고유의 전통이나 생활습속이 낡은 골동품이 되어 버렸다.

이 태풍의 눈은 그 지방의 무형문화재를 구시대의 박물관에다 유폐시키고, 그 고장사람들을 시대의 지각생이 안되게 현대화로 휘몰아 넣었다. 이리하여 민담이나 전래동화는 발 붙일 땅을 잃고 말았다.

③과학·산업 발달의 침해

민담이나 전래동화는 강력한 팬터지로 지배되고 있다. 예컨대 주인공이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의 구분 없이 내왕한다.

그리고 악한 자를 응징하는데 신통력을 발휘하는 비과학적인 「보물」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해님·용왕·도화깨비·귀신·요괴들이 의인화되어 현실세계와 동일 차원에서 사건을 이끌어 간다.

그러나, 현대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과 산업 발달의 시대이다. 사람들의 사고나 생활이 과학화로 치닫고 있다. 이러기에 초현실적이요 비과학적인 민담이나 전래동화를,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반역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생각하여 보라. 과연 우리의 생활이 과학만으로 정답이 나올 수있을까? 아폴로 11호가 달세계의 비밀을 벗겼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월 대보름날 달 보고 축원하고, 아이들은 토끼가 달나라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다고 믿지 않는가? 진실로 과학에 앞서 그 과학을 낳게 했음도 정신임을 잊어서는안 된다.

④화자의 침해

화자 (話者) 의 무분별 몰지각으로, 순수한 민담이나 전래동화가 그 원형을 파괴당한다. 기억 상실로 원형을 잊어먹었거나, 현대문명의 앵글속으로 그것을 끌고 와, 재구성 또는 개조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유우머나 위트에 치중한 나머지 비건전한 것들을 예사로 전달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예컨대, <청보자기><새끼 서 발로 장가 든 이야기><반쪽이의 꾀>등이 그런 류에 속한다.

이와는 반대로 지각있는 화자들 중에는<고전 동화>나 <사화 (史話) >들만을 더 중시하고 민담이나 전래동화는 황당무계한이야기로 평가절하 (平價切下) 하는이도 있다.

3. 경기도 전래동화의 빛깔

필자는 1970년부터 매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경기도 16개군의 전래동화채집을 해 왔다. 금년도 파주군의 채집이 그 17차년도에 해당된다 (이중 옹진군은 2회) 。

그 17차 채집에서 채집된 동화수는 모두 1203화이다. 이 중에서 중첩된 동화를 그 빈도순으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단 4회 이상만 간추렸으며, 그 채집된 지방명을 약칭으로 표기했다.

<표1>을 보면, 경기도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전래동화의 대표적인 얼굴 빛깔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동 화 제 목	같은 내용의 동화가 채집된 지방	횟수
1	해님 달님	소.대.가.양.포.안.용.여.이.연.평.도.김	16
2	똥으로 끓인 된장국	양.포.안.용.여.이.연.강.평.도.김.화	14
3	우렁이와 젊은이	소.양.안.용.여.이.평.도.김.화.남	11
4	은혜 갚은 까치	소.가.포.이.용.연.평.도.남	9
5	젊어지는 샘물	대.가.양.안.용.여.연.김.파	9
6	노래주머니	양.안.용.여.이.연.평.남.파	9
7	은방망이, 금방망이	대.양.여.이.도.김.화.남.파	9
8	방귀 시합	대.가.양.안.용.여.이.화.남	9
9	호랑이와 풋감	양.이.연.평.도.김.화.파	8
10	복숭아 장군	대.포.안.용.여.이.평	7
11	네 아들의 재주	소.포.용.연.평.화.남	7
12	이상한 매통	양.여.이.평.도.화.남	7
13	좁쌀한알로 장가든 총각	대.가.안.용.여.이	6
14	송장을 뜯어먹는 아이	소.포.양.용.여.이	6
15	여우 누이동생	가.이.평.도.화.파	6

▲표시, 경기도의 전래동화 채집보도표。

「해님달님」이야기는 경기 전지역에 고루분포

그 수위는 <해님 달님> 이야기인데, 강화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채집되었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전래동화이기도 하다.

한편 내용이나 주제를 일별해도, <보은><허욕불가> <지식의 우위성> <권선징악>등, 건전한 동화들이 상위권에 들어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유우머나 위트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적으로 탐탐하지 않는것, 예컨대<똥으로 끓인 된장국> <좁쌀 한알로 장가든 총각 ><방귀 시합><송장 뜯어 먹는 아이>등이 상위권을점한 것은 찬성할 바가 못된다.

더우기나<복숭아 장군>처럼, 왜색 동화가 상위권에든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동화는 화자가 과거 일제교육을 받은 때문이라 여겨지지만 일본 본토에서도 전후 그 동화의 말살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땅에 아직도 상당한 세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큰 수치임에 틀림이 없다。

끝으로 경기도의 전래동화들이 수도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나 일일 문화권의 침해를 받아, 채집동화의 약 30%가 기간 (旣刊) 전래동화집의 것들이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머지 않아 경기도를 위시한 지방의 전통문화들이 인멸 내지는 퇴색되리라는 위구심마저 갖게 된다。참으로 문화민족으로서 자성해야 될 일이다。

4. 전래동화채집 긴급성

고유문화를 가지지 못한 민족은 멸망하고 만다。

공자도 자장이 10세 후에 예(禮)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수 있겠느냐고 물었을때, 역사를 연구하면 미래도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아닌게아니라 외국에서는 17세기경부터 민담이나 전래동화의 채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채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하의 출판사들도 전래동화의 출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것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그러나 그 채집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기구화하고 이를 성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문예진흥원이나 정신문화연구원이나 문공부의 주관 아래, 각면마다 채집요원을 선정하고, 그 요원들을 훈련하여, 사라지기 전의 순수한 전래동화 발굴의 역군으로 삼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더우기나 화자(話者)인 촌로 (村老) 들이 사망하기전에,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채집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당부해 둔다。그것은 전래동화 보유자인 촌로들이 사망하고 나면, 지방 고유의 전래동화는 영영 그 자취를 감추고 말 위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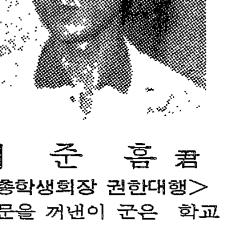
◇글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충청지방에있어 백제권 문화
3. 전라지방의 역사와 지명관계
4. 강원도 일대의 민속자료
5. 경기도일대의 전래동화
6. 경상도의 사찰구조 및 현황
7. 연재를 마치며

누굴 위한 휴업인가

東岳路

지난 7월30일부터 18대 총학의 총학생회장권한대행직을 맡아오고 있는 이준흠 (산공과4년) 君。

『현 정부의 정통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고 정권유지수단을 위한 휴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며



이 준 흠君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말문을 꺼낸이 군은 학교측의 태도에 더욱더 불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분명히 휴업은 정부측의 압력에 의해 결정된것인데 가정에 보낸 사과문에서 조차도 학생들의 시위와 부상을 염려해 휴교했다는 말은 결국 운동권학생들때문이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럼 휴교하지말자는 학생들의 주장이 어디 잘못된 점이 있읍니까』라며 자못 흥분된 어조로 말을 잇는 이군은『전통사학이라 자부하는 본교가 Y대K대등의 사학들의 대처 태도와 비교해 볼때도 얼마나 나약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행동해 왔는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마 학원자율이 상실된지 오래고 학생들의 역량결집만이 제모순점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86년 상반기 학생활동에 대해 정세분석의 실패로 인한 너무빠른 총학의 와해와 그러한 비판의 상쇄를 위한 무리한 싸움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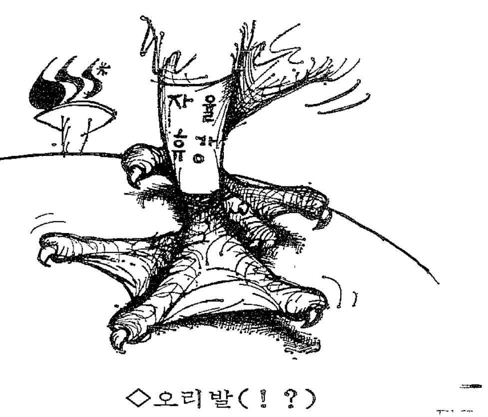
한편 오는 28일부터 사흘간열릴 축제는 백상체전과 학술 문화제를 같이 개최하게 되는데 연사·구금등으로 인해 강연회는 불가능할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모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싸워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공식적으로 인정돼있는 학생운동의 장을 최대한 살려 철저한 준비와실행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한다·총학생회가 너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는 일부 학생들의 비판에 대해 이군은『학문을 하는 목적은 진리의 탐구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일반대중에게 알려야할 책임또한 있읍니다。

현 시국속에서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독재정권에 의한 폭력에 부딪히는 것이고 그것은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것 아닙니까?』라며 오히려 반문한다。『그러나 학내문제는 역시 외면할수없겠지요。얼마전 장학금문제가 제기됐었지만 식당문제 도서관장서·서점문제등에대해서도 10월 중순경 ·동발·축위에서 조사한것을 료대로 보고대회를 갖고 자료집도 발간할 것입니다』라며 학내의 문제에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음을 생각케 한다。

이땅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 대학졸업때까지 시위장면한번 보지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다며 정치적인것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는 이君의『현재의 시국에서 보수대연합이 이루어 진다면 탄압이 더욱 심화되겠지만 운동에 대한 신념만 가지고 있다면 멀지않아 이땅에 민주화된 모습을 눈으로 지켜볼수 있을것』이라는 신념에찬 모습을 바라보며 18대 총학을 바라보는 기자의 마음도 그 성과를 기대할수 있었다。

<김정균記者>

東國漫評



◇오리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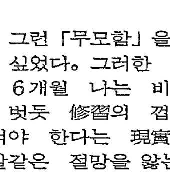
날자, 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탈 수습기

나의 탈수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다가온다。이젠 정말 날고 싶은데, 비상하고 싶은데

나는 진부한 意識의 평원위로 의미있게 날개짓을 그리는 한마리의 孤高한 새이기를 원했다。무한한 世界는 내 가치의 全部였고 온 우주를 넉넉히 다 품을수있는 「거대함」이고파서 나는 또 얼마나 飛翔하려는 의지에 충혈된 가슴을 하고 살아가야 했던가。

6개월。「이카로스」를 꿈꾸며 살았던 시간이었다。견고한 성책을 빠져나오기 위해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달고 날아올랐으나 너무나 태양가까이로 날아올랐기에 밀랍으로 만든 날개는 녹아버리고 캄캄한 심연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이카로스。



남 정 령 記者

그의 그런 「무모함」을 사랑하고 싶었다。그러한 몸부림속의 6개월 나는 비로소 허물을 벗듯 修習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現實앞에서 몸살같은 절망을 앓는다。나의 초라한 빈손, 애매하기만 했던 나의 生活들이 눈물겹도록 부끄럽다。

바람같은 환상속에서 대학에 입학했던 내게 「修習記者모집」社告는 굉장한「구체성」으로 나를 매료하였고 봄별이 따사롭던 3月의 어드메쯤에서 붙어있던 최종합격자명단은 껍데기 뿐이었던 나의 知的오만을 얼마나 부풀려 놓았던가。

처음 新聞을 만들면서 가져보았던 의무감은 이제 탈수습을 해야하는 지금, 막막한 무력감으로 변해버리고말았다。나는 무엇을 했던가。무엇을 할수 있는가—난무하던 「主義」나 「이즘」속에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던 내 조그만 고집마저도 안일과 적당히 타협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침몰되어 있다。아, 탈피를 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맞고싶었던 나의 탈수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다가온다。이젠 정말 날고 싶은데 宇宙속으로 비상하고 싶은데…。

이카로스의 날개라도 달자, 그리하여 두터웁게 나를 가두었던 無知와 我執과 鈍感의 성책을 벗어나고 싶다。記者가 되는거다, 이제 나는。이미 껍질이 되어 버린 수습시절을 묻으면서 난 감상이 아닌 적당한 현실로서 記者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다。더이상 부끄럽지 않고 이젠 떳떳한 모습으로…。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문과대 영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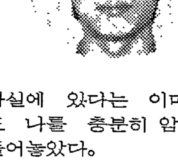
수습의 옷을 벗은 나는 알몸뚱이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끝까지 뛰어보리라

진한 담배연기가 나를 휩싸고 돌며 지난 6개월 기간이 생각이 난다。

그러나, 이제는 脫수습。

「脫」이란 벗는다는 말을 뜻하는 것일까? 그럼 이제 나는 드디어 修習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기자가 된다는 말인가보다。이제 다시는 입지못할 修習의 옷을 벗었기에 나는 알몸뚱이가 된듯이 부끄럽다。차라리 修習이라는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있다면 이리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는 않으련만…。

대학생활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발을 들여논 新聞社는 지



유 준 연 記者

하실에 있다는 이미지만으로도 나를 충분히 암울하게 만들어놓았다。

더군다나 처음 들어섰을때의 큰 책상들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자기 할 일에 바쁜 이들의 낯선 분위기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 어두움과 썰렁한 분위기는 나를 무척이나 초라하게 느끼게하였고, 아직도 낯설기만한 지하실인 신문사에서의 쓸데없는 잡념이나 나의 헛소리조차도 나에게대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는가 싶다。

「너는 왜 이 곳에 있는가? 네가 바라던 일은 정말로 이것이었는가? 네가 과연 이 시대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라며 항상 나에게 해왔듯이 스스로 자문해보곤했다。결국 어느 물음에도 정확한 대답을 할 자신이 없었기에 어떠한 사명의식없이 막상 수습을 벗는다는 말을 들으니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더군다나 지루한 터널과도같은 긴시간을빠져나온 지금은내 보일 수 밖에 없는 빈껍데기의 실체를 파악했기에 탈수습의원고를쓰는 것이 힘들기만하다。

이제 또 몇 번이나 신문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할까?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나가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유부단한 자신이었기에 결국 탈수습기를 쓰는때까지 온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오직 하나의 길뿐이없다。진정한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자 원해서, 기자가 되려는 마당에 나에게 물었을때 확실한 대답을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싶은 거지?」『나는 우리의삶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진실이라도 알려주고 싶은거야』

<경상대 경제과>

쓰고싶은, 써야하는 글을 쓰겠다는 의지가 몸속에서 꿈틀거린다

거리의 큰 시계탑위에, 지하철 입구에, 눈길 가는 곳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亞州競技大會의 남은 일수를 남들이 세고 있을 때 나에게는 색다른 설레임과 즐거움이 있었다。

금메달소식에 모두들 들떠 있을때쯤이면「修習」이라는굴레를 벗어난다는 부픈꿈이 그렇게도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는지도 모른다。하지만 「成功的이고 원만한 (?) 大會運營」을 위해 가정학습이 실시 되었고 나의 기대는 일주일이나 지연되는 非運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脫修習」이었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남들이 금메달을 땄다고 좋아하는 것의 절반만큼도 기쁘지 않다는 것이다。오히려 『修習때가 좋았던것같다』는 동료의 말에 어처구니 없게도 마음속 깊이 同感을 表해 버리고 만다。어쩐 일인가。

大學言論暢達의 기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뭔가 새로운 전통을 쌓아 나

임 충 범 記者

가는 주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懦弱함에서 우러나온 두려움인지도 모르겠다。사실 나는 원래 겁이 많으니까。

그러나 나는 가슴에서 새로이 다져지는 책임을 느낀다。쓰고싶은, 써야하는 글을 쓰겠다는 의지가 몸속에 살아 꿈틀거림을 느끼기에 나는 또다시 밝은 희망에 젖는다。

철없이 뛰어 다니던 지난날의 오만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知性의 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자만은 이제 나의 부단한 노력과 용기를 요구한다。아시안게임의 함성속에서도 스포츠의 발전이 결코 이땅의 어둠을 해결해주지 못함을 아는 이가 있듯이 자신들의 등록금으로 만든 신문을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의식없는 학생들 속에도 참된 글을 기다리는 눈총이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안다。

混濁한 세태속에서도 늘이 맘때면 높푸르기만 한 가을 하늘을 향해 조용히 외쳐본다。『아무리 두려워도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농과대 농경과>

正直의 뿌리가 서린 한줄기의글, 나는 그런 검을 쥐어야한다, 꽉 쥐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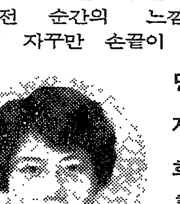
지하철 입구로 휩쓸려 들어오는 아침。쨍그랑 부숴지는 인파속에 유리조각으로 존재하는 나。

타박타박 걸어가는데 충무로의 강아지들이 유달리 나를 또렷이 바라보고 있다。상냥하게 웃음짓듯 살며시 혀를 낼름。마주 웃음짓던 나는 순간 脫修習을 생각해내고 두눈에 위엄을 세웠다。강아지앞에 웃음거리가 되어서야… 스스로의 위로。

그간의 휴업으로 뜸했던 교문입구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망막위의 거물들。문득 스쳐가는 여학생이 본듯도 한데 세련미가 넘친다。

나의 청바지와 빨간 렌드로바。꽃가게에 비친 내모습은 동생말대로 고등학생 딴따라? 오늘 아침은 유달리 감각이 예민하다。홀연히 나의 수업과 신문을 빼앗긴 휴강후에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감각 때문일까? 두터운 옷을 입도록 이 가을을 찬미하지 않았다니。사뭇 슬퍼진다。

신문사로 들어온 나는 조금씩 심신이 긴장된다。준비, 땅! 국민학교 운동회 달리기 시합 직전 순간의 느낌이다。왠지 자꾸만 손끝이 조



민 재 희 記者

물조물하게 저려온다。무언가 나를 조바심나게 하는 가보다。

충분하지 못했던 수면 탓일까? 아니면 또다시 반복될 열차행렬같은 신문만들기 때문일까? 순간 터득한 깨달음、脫修習。 무슨 계시를 받은듯한 설레임이다。그동안 방패삼았던 수습의 막을 빼앗기고 이제는 단지 검만을 꽉 잡아쥔 투사의 모습。내 꼴이 그 모양이다。망막에 비친 그대로, 내 귓청을 울린 그대로의 正直의 뿌리가 서린 한줄기의 글。나는 그런 검을 쥐어야 할텐데 주춤주춤 나의 검을 내려다본다。

왠지 나약해 보이는 거울속에 비친 나의 全裸。나는 부끄러움의 그림자까지 정직의 검으로 잘라낸다。이어 잠시의 고통, 그리고 기절。그런 나는 이브의 꿈을 꾼다。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순수의 모습。순수와 정직에 여과되지 않을 일이 무엇이랴。그렇게 다짐하며 정신을 차렸다。

돌연 하교길에 충무로의 강아지들이 나에게 납죽엎드리는 상상을 한다。또 웃음이 나온다。

<사범대 국교과>

일하는 기자로서, 동국民草로서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의 가식의 가면을 벗겨줄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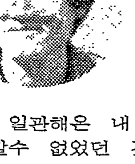
이순간, 짙은 어둠속의 별들은 아마도 나를 보며 웃을 것이다。아직도 사물을직시하는 눈이 미숙하기에 시인 윤동주의『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기를…』라는싯귀절을 새삼 뇌아려 보는건지도 모르겠다。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항상 뛰어야만했던 시간들, 남다르게 (?) 살아온 지난6개월이 염색된 가을나무가지를 스쳐내뇌리를 스쳐온다。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지만 늘『왜 이길을 가야하나?』하는 의문을 떨쳐 본적이 없다。하지만 조그만하게 활자화된 기사를 보며 쓴 기쁨으로 자위하며 살았다。

시위를 튕겨나간 화살같이 그렇게 지나간 세월속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 했던 내게는 선배들의 웃음이 두렵고 무겁게 느껴질 뿐이었다。「기사는 발로 써야한다」이 불변의 진리를 항상 머리속에 되새기며 출입처문을 노크하지만 이렇다할 기사가 없을 때에는 선배들의 험악한 (?) 표정이 떠올라 발걸음이 떨리기도 했다。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바둥거리는 내모습에서 어느새 짜여진 테두리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알았고 기사를 마감한후 막차를 타고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술냄새와 칙칙한 담배연기가 온몸을 적시곤 했다。

갈등, 고뇌, 번민의 나날이었지만 오로지 한 우물을파



김 영 민 記者

기 위해 일관해온 내 생활을 배신할수 없었던 것은언제부턴가 신문사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환각주 (?) 에 취해서도 몸이 피곤해서도 배움의 길은 계속되어야만 했던 것이다。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되듯이 한장의 신문을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내가선택한 외줄타기 삶이라 고통의 순간들과 부딪쳐가며 부족한 자신을 완성시키려 무던히도 참고 노력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부끄러울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가식의 가면을 벗겨줄 때가 온것 같다。정말이지 이제는 독자들앞에 자신있게 내놓을수 있는 강렬한 신문 (?) 의 유능한 기자이고싶은것이다。향기짙은 東國民草로서는—。

<문리대 영문과>

땅위의 모든것이 쓰러지는 등잔불처럼 불투명해도 나만은 진실되게 살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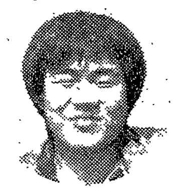
상아탑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리고 新聞社의 문을두드리면서부터 그원경의 가열에 나는 끝내 허물어지지않는 하나의 확신으로 살고싶었다。

修習記者, 이것이 내자리라는 인식의 눈을 뜨면서, 사색의 깊은 여울목에서 회의와 허탈에빠져 허우적거릴때에도 내앞에 끝없이 펼쳐진 손길에 분명히 힘주어 맞잡고 갈구하던 그것은 분명新聞에대한 몸짓이었다。이땅위의 모든것이 이른가을 바람에 날려가는 때이른 낙엽마냥 희미한 등잔불처럼 불투명해질지라도 나만은 흔들림없이 진실되게 살고싶다。

이제 막 수습이란 「껍질」을 벗겨 버리려 한다。그것도 아주 멀리멀리 던져버리려한다。아프다!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저려오기 때문이다。간밤에 나도 모르는새 키가 엄청나게 커버렸다。아직은 작아야만 되는데 벌써, 크게 자라 있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은캠퍼스에서의 발걸음을 新聞社로 향하게 했고 두개의 눈이아닌 네개의 눈으로 뛰어야만 했다。여러 학우들의절규하는 소리와 뒤엉킨 피 눈물을 듣고 마셔야만했던 괴로움, 그리고 수십번에 걸친 「한쪽지」의 기사작업으로녹초된 몸을 끌고 허탈감에빠져 불꺼진 자취방에 들어섰을때의 허망함。

진정 이모든것이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피눈물로 대



정 성 기 記者

지를 적시려던 學友들의 대변자란 명목의 고독이란 말인가。이러한 자신과의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무능함을 탓해보기도 했다。그러나 점점이 찍혀나온 기사의 엄청난 활자의 힘에 큰 용기를 얻어 다시뛰었다。괴로울땐 동료기자와 고통을나누며 선후배간의 믿음과 정으로 뭉쳐진 인간의 응집력에서 나의 세계를 발견했던 것이다。

오늘따라 가을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게보인다。들녘의 벼이삭이 여물어 고개를 숙인다。「아! 민주언론의 기수」가 진정 나의 바램이었나 보다。이제 명확한 표적을 세운 발걸음은 오늘도新聞社계단을 힘차게 오른다。나는 다짐한다。돌맹이처럼굳건하게 외쳐보겠다고。

<문리대 영문과>

외부압력으로 인한 "있을 수 없는 일"

——임시 휴업조치 해설

"소신行政 不在의 처사"

「의연한 大學」이미지 회복해야

▲이번 휴업조치는 외부압력에 대해 비판없는 맹종이라고 평가될수도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총장실점거농성광경)

학교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9일간을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고 임시휴업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휴업은 지난80년 계엄하에 취해졌던 휴업조치이후 80년대에 두번째 취해진 조치로서 문교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학교당국에서 그 여부를 결정했다는데 주목의 대상이 되고있다.

우선 이 조치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지난달 20일을 전후해서 大學체육관이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大學이외에도 휴업조치를 결정하는 시내대학이 잇달아 발생하자,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아시안게임 기간중의 휴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 (本紙8월26일자 보도)』던 학교당국은 지난달 17일 학처장회의를 열고 「좀더 사태를 관망해보자」는측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였다.

그러나 23일 학생들의 시위가 중문·정문에서 있자, 보직교수 대부분이 시위현장에 나타나 추이를 살핀 후 그날 오후 늦게 소집된 비상학처장회의에서 24일 0시를 기해 휴업에 들어간다고 공식결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당국은 휴업기간中 각 가정으로 李智冠총장 명의로 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이번 조치가 도심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예상되는 학생들을 시위과정에서 빚어지는 학생들의 부상을 예방하고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졌다」고 해명하고 이의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학교측의 이조치는 지난달26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준흠(산공·4)군등 일부학생대표들의 총장실 점거당시의 주장처럼 「관계당국의 압력에 대한 맹종」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수도 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이번 일을 관계기관의 압력이 은폐된 상태에서 「소신 있는 大學行政의 不在」로 빚어진 「있을수 없는 사태」로 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ㅂ과 ㅈ군은 『전쟁중일지라도 교육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무리 亞洲경기가 국제행사라 해도 大學에 휴업을 강요하는 現政權의 근원적 문제도 문제지만 이에 아무런 비판없이 따르는듯한 인상의 학교측의 처사역시 납득이 안간다』고 언성을 높였다.

「ㄱ과 ㅈ군 역시 『시내몇몇 대학은 끝까지 휴업을 거부했다고 하던데…』라고 말끝을 흐리며 『오늘의 나약한 東國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고 학교측의 휴업조치를 못마땅해 했다.

80년 역사와 학문적 전통을 자랑하는 本校가 이렇듯 외부환경에 학사일정마저도 좌지우지되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탓하기에 앞서 동국의 현실역량을 본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삼 학교당국자의 근원적 통찰을 촉구하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삼아 결코 외부압력에 굴하지않고 소신껏 밀고나가는 의연한 모습의 학교행정을 기대해본다. 〈洪基榮기자〉

식당음식 불매운동

慶州 후생복지개선 될때까지

慶州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를 비롯 3개단과대학생회및 대의원회등 6개 학생자치회가 중심이되어 지난6일부터 후생복지시설개선을 내걸고 제1차 식당불매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불매운동은 학생회관 식당을 비롯 도서관, 한의학관식당, 원효관휴게실을 대상으로 벌이고있다. 불매운동 첫날인 지난6일에는 한산한 식당음식 판매대와는 달리 총학측이 준비한 도시락 임시판매대에 학생들이 몰리는등 일단은 학생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있다.

총학측은 『이번 불매운동은 학생들의 기본권익을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식당음식의 질과양의개선, 메뉴증설, 영양사제 도입, 위생시설개선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요구가 관철되지 않을경우 2차불매운동까지 도전개할 뜻을밝히고있다.

이에대해 해당업자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성의를보이지않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당국이 개입, 문제해결점을 찾아야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식당불매운동은 학생들의 몇차례 시정요구에 도불구, 업자측이 계속적인 상업주의적 이윤추구경영을 한것이 불씨가 되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데 『근원적인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직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대두되고 있다.

한편 총학측도 단순한불매운동이 아닌 현실성있는 개선요구책으로 학생들로부터 계속적인 호응을 얻을수 있는방안을 제시, 불매운동이 명목이 아닌 실질운동으로 매듭되어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佛敎文學학술회의

11일, 교수 세미나실서 열려

「韓國佛敎文學學術會議」가 한국문학연구소 주최로 오는 11일 오전10시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개교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사 가운데 佛敎文學전통을 재조명 함으로써 되살리는것을 학사적의의를 목적으로 하고있는데 주제논문발표자는 다음과같다.

▲李鍾燦(본교 국문과) 교수=「韓國文學에 있어서 불교문학의 위치」 ▲金烈圭(南江大) 교수=「佛敎와서사문학」 ▲李相寶(國民大) 교수=「韓國佛敎詩歌文學의 類型과 변천」 ▲印權煥(고려대) 교수=「韓國禪詩의 형성과 展開過程」 ▲李炯基(本校 국문과) 교수=「韓國近代詩에 나타난 佛敎的양상」.

敎大院 종합시험

전공및 교직등치뤄

교육대학원 종합시험이 오는 25일실시된다.

4학기이상 등록한자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원생으로 치뤄지는 이번시험은 전공및 교직, 외국어(영어)등으로,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교학과에서 받는다.

佛大生11명 合格

군종장교 사관후보생

86학년도 「군종장교 사관후보생」 본교불대재학생11명이 합격하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合格者명단은 다음과같다.

▲이수철 (선학과1) ▲곽점식(불교1) ▲이정우 (불교1) ▲김성준 (선학과1) ▲강태주 (선학과) ▲정하영 (불교1) ▲하승현 (불교1) ▲양재형 (불교1) ▲이상훈(인철1) ▲김범준 (불교1) ▲정동건(불교1)

東國山岳祭

18~19일 청학산서

제18회 東國山岳祭가 오는 18·19양일간 강원도명주군 청학산 소금강에서열린다.

써클소식

▲수중탐험연구부=제40차 추계정기탐험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3일까지 강원도 삼척군 용화지구에서 가졌다.

▲동굴탐험연구부=추계정기탐험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3일까지 강원도 평창군과 영월군에서 가짐. 한편 同써클은 「제10회 동굴제」를 오는 18·19일 양일간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산계리 석화동굴에서 가질예정.

東國人 書法大展

경인미술관서 4일간

제14회 「東國人書法大展」이 동국서도회 주최로 지난6일부터 오는9일까지 4일간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개교8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재학생作品 48점과 李智冠총장등 本校 교수·동문 찬조작품 25점이 전시된다.

經大院 종합시험

23일동국관서 실시돼

경영대학원제2학기 종합시험이 오는 23일 오후7시50분 동국관 (L301)에서 실시된다.

2학기이상 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실시되는 이번시험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교학과에서 원서접수를 받으며 시험과목은 전공필수와 외국어로 영어, 공통필수인 경영학 원론이다.

經大院 학생회장에 柳泰馨씨 선출

柳泰馨회장

본교 신임경영대학원 학생회장에 柳泰馨(인사관리)씨가 선출됐다.

지난달 제25기 경대원회장에 선출된 류씨는 『보다활발한 경영대학원 운영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임소감을 밝혔다.

회전무대

이번에는 제발 「축제다운 축제」를 기대합니다。

……별써부터 그렇게 말이 많아서야……

○…요즘 많은 學兄들 사이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민족민주대동제」에 대한 갖가지 의견이 분분.

이는 지난달 종합 운영委에서 개교80주년을 맞아 전동국인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행사를 마련, 동국종풍의 계기로 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표명하기에 이르렀으나 휴업등으로 인한 준비부족등을 내세워 행사내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정할 움직임이 일자 많은학생들이 유명무실한 행사로 전락하지나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우러나온 말들이 그것.

아뭏든 이번 축제는 지난6일 종학생 운영위에서그 성격이 재차 확인되고 축준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는데 本회전무대子 제발 이번에 「축제다운 축제」가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요.

……이래저래 口舌數…심란합니다……

○…갑작스런 휴업으로 어쩔수없이 가정에서 범국민적행사(?)에 동참하게된 學兄들을 대상으로 TV講義에 나서신 몇분 교수님들이 있어 구설수.

그것인즉 아주경기가 한창이던 9월말 本校 L교수님이 아주경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강평해주시더니, K교수님은 야당의 헌특불참에 대한 신랄한 비평(?)까지 하시더라나.

이에 대해 ㅇ과 ㄴ군은 『2학기 들어 공부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 혹시 이번 중간고사에 「교수님 말씀」이 출제되는게 아니나』며 지난 5월 시내 각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비교하여 심각하게 들먹이기도.

……「휴업=공돈(?)」의 관계?……

○…9일동안의 휴업과 관련, 이해타산(?)에 밝은 몇몇 학형들이 조만간 자신들에게 「공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이는 S大나 K大등 아시안게임기간중 휴업에 들어간 시내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일부를 환전해주기로 했다는 소문과 함께 본교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소문때문이라는데.

이에대해 학교측은 『다른대학보다 1주 먼저 개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결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고 『S대나 K大등은 총학구성이 인정되지 않은데서 오는 학생회비 환불이 있었음을 들었다』고 해명.

……과연 휴업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난달24일 慶州캠퍼스는 서울캠퍼스의 임시휴업조치에 따라 부득이 휴업에 들어갔는데 과연 이곳에까지 휴업령이 적용돼야 했었는지에 대해 뭇學兄들이 고개를 갸우뚱.

더우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취업시즌을 앞두고 도서관만이라도 개방해달라는 學兄들의 간곡한 부탁마저 외면, 『학교방침이다』 『서울캠퍼스 학사일정에 맞춰야한다』며 끝내 거부해 씁쓸.

고시반 P군은 『도대체 학교주인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한 휴업인지 뭐가 한참 잘못됐다』며 흥분.

本회전무대子도 한마디 『일원행정도 좋지만 앞으로는 독자적 경주특성도 고려하셔야지요』

백상탑건립 모금운동전개

慶州 자발적 학생참여 기대돼

慶州캠퍼스 총학생회는 「백상탑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오는11일까지 결성,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백상탑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동국인 으로서의 주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며 서울캠퍼스와의 일체감 도모등을 목적으로 건립되게 되는데 총학생회장 金完植군을 추진위원장으로하여 명예위원과 상임위원, 추진위원등으로 同건립위원회를 구성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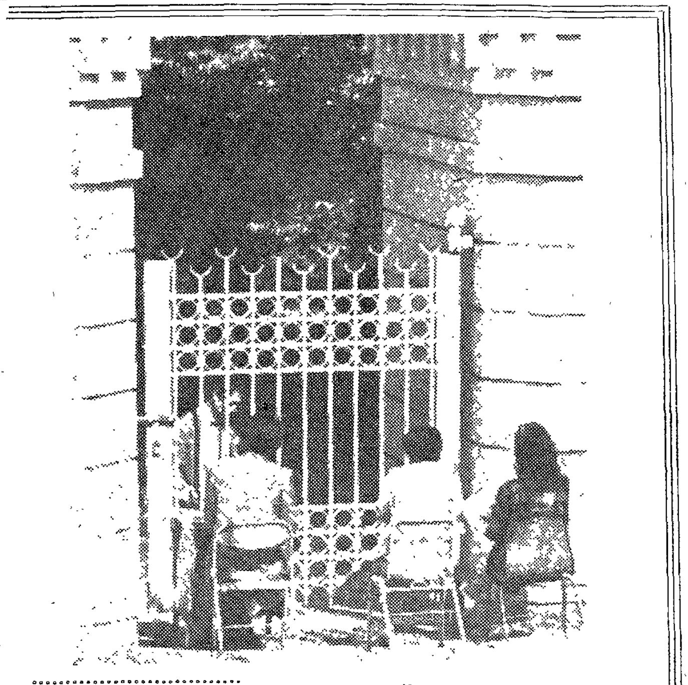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차원에서 건립될 이번 백상탑건립모금운동은 내년3월말까지로 계획하고있다. 예정비용은 청동으로 건립할경우 영구보존이 가능하나 약4천만원이 소요되며, 인조석또는 마블도색일 경우는 보존기간이 1백년으로 약1천만원이 예상되고있다. 한편 백상탑건립에 따른 위치선정및 제반사항은 모금기간중 각계의견을 수렴, 결정할 예정이다.

行大院 종합시험

10일, 석사과정자대상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종합시험이 오는 10일 실시된다.

3학기등록 이상자가 해당되는 이번시험 응시원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同대학원 교학과에 접수해야 하는데 시험과목은 전공필수및 외국어로 영어와 공통필수인 행정이론등이다.



카메라 뒷상

濁流

대문을 잠그고 주인마저 거부하는 이 시대의 濁流여。너 앞에 발묶인 우리 가슴에 감동의 落淚대신 한숨의 오열이 복받쳐 오름은 어인일인고。너는 이제 止를 알고 우리의 작은 함성에 한줄기 濁流이기를… <글·사진=김영석記者>

김광선君 복싱금메달

亞洲경기 레슬링에서도 2명

지난 5일 폐막된 「제10회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선수의 일원으로 출전한 복싱의 김광선 (체교4)군과 레슬링의 김영남 (84체교卒)、김수환 (84체교卒) 동문등이 각 종목에서 금메달을획득, 아시아정상에 올랐다.

지난 4일 잠실학생체육관서 끝난 복싱 최종일 결승서 플라이급의 김광선군은 인도선수를 맞아 두차례 다운을 빼앗는 등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친끝에 2라운드 2분58초만에 K·O로 금메달을 안았다.

김선수는 예선1회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을 연속 RSC및 K·O로 장식했다.

신입생 장학금 규정

일부 확대 실시키로

87학년도부터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대한 규정이 일부 확대되어 실시된다.

교무처 발표에 따르면, 대학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하는 명진장학 (인원=1백명)의 경우 본교 대학원진학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게된다.

또한 4년간 수업료、기성회비 반액을 지급 하는 혜화장학 (인원·2백명)의 경우 경주캠퍼스에 한해서 학력고사 전국순위 4만5천등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이상으로 학력고사 전국순위 5만등이내자로 장학범위를 5천등 늘렸으며 4년간 수업료반액을 지급하는 동국장학 (인원·3백명)은 학력고사 전국순위 4만등 이내자 (서울캠퍼스) 학력고사 전국순위 5만5천등 이내자 (경주캠퍼스)로 「각각 5천등씩 장학범위를확대했다.

國文科 정기공연

「19호실의 반란」 올려

제5회 국어국문과 정기연극공연으로 박정욱(3)作 「19호실의 반란」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본교 연영과 스튜디오 무대에 올려진다.

높은 理想을 가진 젊은 人材를 찾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모집부문	모집해당학과	인원
인문사회계열	상경계(경영, 경제, 국제경제, 무역, 회계) 법과계(법, 사법, 공법, 행정) 일본어, 통계학	250명
이공계열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요업공학, 화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관공학, 전자공학, 전자계산학, 산업공학	
영업직	전학과(학과제한 없음)	

2. 응시자격
가.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
나. 4년제 정규대학 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 1987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 취득자
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 다. 면 접

4. 제출서류
가. 입사원서(당사 소정양식)……1부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1부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86년 10월 13일(월)~10월 20일(월) 09:00~18: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쌍용빌딩 18층 (서울 중구 저동2가 24-1)

6.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가. 일시 : 1986년 10월 31(금) 15:00
나. 장소 : 쌍용빌딩 후문 주차장게시

7.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과목 : 영어, 일반논문, 적성검사(영업직, 전산직에 한함)
나. 일시 : 1986년 11월 2일(일) 09:00
다. 장소 : 국민대학교

8.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가. 일시 : 1986년 11월 7일(금) 15:00
나. 장소 : 쌍용빌딩 1층 현관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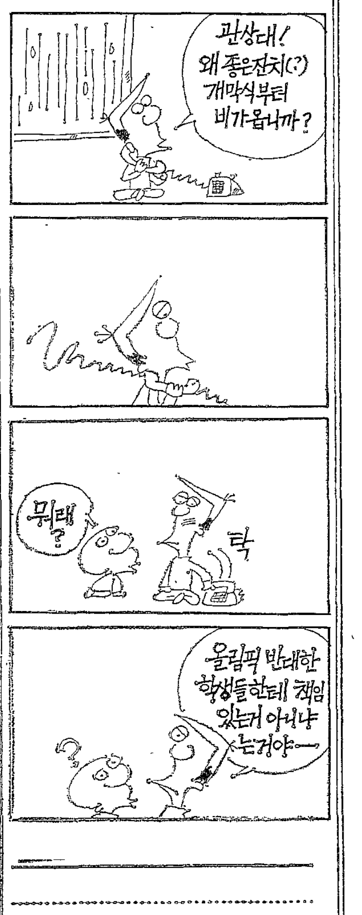
9. 기 타
가.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나.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정한 가점혜택 부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할 것
◉전화문의 : 266-5150~9 (교)309, 371
쌍용인력관리위원회

모집회사
쌍용양회·(주)쌍용·쌍용정유
쌍용건설·쌍용중공업·쌍용제지
고려화재해상보험·쌍용투자증권
쌍용컴퓨터

SSANG YONG 쌍용인력관리위원회
100-□□서울 중구 저동2가 24-1(쌍용빌딩)TEL : 266-5150~9(교환)309, 371

여로니

오 황
<18>



잊고 싶은 가을

수필

"선영목소리에는 어떤 힘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파마기를 찾아볼 수 없는 곧은 생머리, 회색을 주 바탕색으로 한 가을쉐터와 검정색 통바지, 핼쓱하게 여윈 두 볼, 까칠한 피부, 피곤해 보이면서도 강한빛의 두 눈동자.

5년만에 만난 선영은 이런모습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때와 변하지 않은 것은 목소리뿐.

『마음은 항상 있었어. 가끔씩전활 해봤지만 늘 없었던 것 같아. 학교는 잘 다니니? 이제 졸업반이지?』

말하는 선영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응. 영예스럽지 못하게도 졸업하게 됐어.』

『너희같은 여대에서는 졸업하기가 어려울텐데 영예스럽지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계속 물고늘어지는 선영이로인해 난 당황했고, 순간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선영은 S대 조소과에 다닌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항상 조용하게 그림만 그리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친구이다.

『학교 아이들의 소비지향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에 환멸을느꼈어』

『여자의 미를 외모에서만 찾으려는 남자들과, 그것을위해 돈으로 장식하고 암내 풍기는 기집애들의 속물 근성, 휴학했어. 그림같은 것,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어떤 힘같은 것이 배어 있었다.

『학내 문제로 항상 시끄러운 가운데서 생활했지만, 한계와 자학에만 그칠것 같아 걱정도 되고.』

선영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부모님과 오빠를 핑계로 내가 거기에서 손을 끊은 것은 2학년2학기 들어가면서 부터였다. 당시 오빠는 강집이란 형태로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내게 대한 제재는 거의 강압적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으리라. 어쩌면 두려움과공포심이 계속 짓누르는 그 힘겨움을 견뎌내지 못해서 스스로 손을 놓게 된 것인지도. 그렇게해서 나는 두더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활에 있어 무수히 가로막고 방해하는 보이지않는 어떤 힘의 작용들 난그것들을 떨쳐버리기위해 늘 어두운 생활을 즐겨야했다.

선배나 친구 후배들이 눈에 띨새라 구석진 장소나 도서관을 애용해야했다. 아이들이 스크럼을짜고서 교정을 돌때 나는 그늘에 숨어 방관자가 되어야했고, 돌맹이와 최루탄이 공중에서 육박전을 할때는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해야했다. 나 자신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방관자이면서도 나와 같은 분류의 또다른 방관자들에게 적대심을 품어야하는 모순을 저질러야했다.

『집 나온지 몇 개월 됐어, 내 마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가족조차도 의식화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런 것을 외치고 다닌다는게 모순인 것 같아서야』

외모에만 치중해 세태와 융합해 버리는 여대생들의 한심스런 작태를 욕하고 개탄하면서도 정작 내 동생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실리만 추구하는 기업가들을 욕하면서도 나의 아버지에겐 감히 손가질도 못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선영에게서 다시 걸려온 것은 열흘 정도 지난 후였다.

그동안 선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긴 나는 다른 볼일 다 제처놓고서 약속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그날 선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정해놓고서 연락 하나 없이 무산시켜버린 선영이 밉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도 선영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신학기 접어들면서 각 대학교로 부터 제법 시끄러운 소리들이 울려 나가고 있었다. 졸업한 마당에 직접 느껴볼 순없지만 신문이 있기에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는 있었다.

신문을 펴고서 훑어 내려가던 나의 눈에 들이닥치는 기사가 있었다.

…최선영(24·××전자 부품해고 근로자, S대 조소과 휴학) 구속…공장내 파업 주동…

신문을 접은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직까진 차가운 바람과 맑고 밝은 초봄의 햇살.

패션잡지를 옆구리에 끼고 내옆을 스쳐지나가는 여대생의 화사한 화장만이 햇살의 벗이 되어 줄 듯 싶었다.

나는 신문을 쥔 손에 가만히 힘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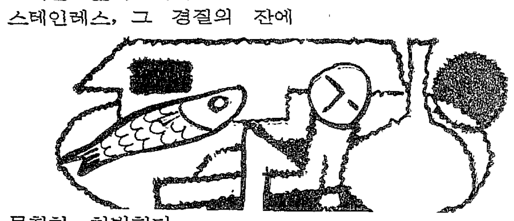
이 의 화
<문과대 국문과>

주막에서

공 광 규

묻어 오는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술을 젓는다 이 어둠을
어떻게 횡단할 것인가
젓을 수록 탁한 술은
비틀거리는 항로로
우리를 인도한다.

생각이 찢기는 꽃
포연에 눈 먼
스물 몇 살 세떼들의 노래는
가을에 낙화하는
뜨거운 잎이 되어
스테인레스, 그 경질의 잔에



무참히 처박힌다.

노가리가 찢기며 반항한다
주둥이를 비틀리며 반란한다
십원짜리 노가리를 닮은 우리
목마른 입술의 자존은
언제까지 밟힐 것인가.

술을 젓는다
최루탄 냄새와 한국적 민주주의
이 탁한 어둠의 비애를 섞어
시대를 마신다
비틀거리는 나와 반란을 마신다.

<문리대 국문과·시인>

社告

제24회

본사 學術賞 원고모집

원고 마감 오는 31일

募集分野

▲人文科學賞
▲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應募要領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모두 2백자원고지 60枚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및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本校및 경주캠퍼스 재학생에限함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당선작발표와 함께 밝힘
▲시 상=상장및상금
▲작품제출=10월31일까지 本社에서 접수
▲당선작발표=11월11일 本紙紙上

東 大 新 聞 社

새책안내

中小企業創業과 事業性分析

朴春燁 著

창업과 신상품개발에필요한 실제적 내용을 기업가로서의 적성평가, 사업아이디어, 사업자금조달등에 대한 실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저서가 本校 박춘엽(산업공학과) 교수의 저술로 출간되었다. 사업성 분석을 시장, 기술, 재무분석등으로 세분하고 제 단계를 도해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진선출판사刊·320面·4,900원>

철학 문답

김대웅 著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평이한 문체로 알기쉽게 저술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철학상 중요한 문제라 여기는 항목들을 148개로 요약, 문답식으로 엮어 철학의 기초적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면이 엿보이는 책이다.

<한마당刊·186面·2,500원>

和歌選集

오영진 譯

우리나라의 시조에 해당되는 일본의 전통시가인 和歌를 비롯하여 그 영역인 렌가(連歌), 하이쿠, 센류우(川柳), 로오까(狂歌) 등을 총망라 시대별, 시집별로 분류, 해설등을 하고 있다.

<教學研究社刊·321面·5,000원>

영화평

환상적인 춤의 言語로 한 발레댄서 투혼 그려내

―영화 白夜를 보고

백야(White-Nights)

태양이 지지않는 「밤이없는밤」 자유를 구하기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건 발레 댄서 니콜라이. 상실한 꿈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치는 탭댄서 레이몬드. 이들 둘은 끈적한 운명의 끈에 의해 白夜의 거리에서 만난다.

사나이들의 우정과 사랑을 영상화했던 「사관과 신사」의 테일러 핵포드 감독이 당대 최고의 Heart-Maker답게 이번에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미된 액션과 스릴의 접목상태의 댄스영화를 「白夜」의 제목으로 내놓았다. 이 작품전반에 흐르는 굵은 선은 사나이의 우정과 예술적 정열, 그리고 뜨거운 남녀의 애정이다.

예술의 자유를 찾아 조국을 버린 소련청년과 자국의 정책에 저항, 자유권을 이탈한 미국청년 이야기로서 주연의 니콜라이역으로 열연하는 미카일 바리시니코프는 극중의 니콜라이와 같은 운명을 겪은 실제 예술적 자유를 찾아 지난 74년 캐나다공연때 망명한 소련의 발레 댄서다.

과거 망명당시에 겪었던 고통과 위험을 재현하는 극중의 스토리에서의 본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서로 다른 예술세계로 갈등을 되풀이하지만 니콜라이와 결국 뜨거운 우정을 확인하는 미국인 댄서 레이몬드 역에는 미국 톱 쇼계에서 제일인자로 손꼽히는 탭댄서 그레고리 하인즈가 맡고있다.

또한 세계적인 명배우 잉그릿드버그만과 이탈리아 리얼리즘의 거장 로베르트 롯셀리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모와 재질을 천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사벨라 롯셀리니는 여기에서 러시아인으로서 레이몬드의 부인인 다리아 역으로 열연한다. 또 극중에 국가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 냉혹하리만치 추적과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않는 KGB의 귀신 차이코 대령 역시 전후 폴란드가 낳은 명배우 젤지 스코리모스키다. 그밖에 니콜라이와의 사랑과 미움의 갈등속에서 그를 다시 국외로 탈출 하도록 돕는 카리나 이바노바역의 헬렌 밀렌의 연기도 돋보인다.

「백일의 밤」 백야의 북극항로를 비행하던 런던발 동경행 747 점보여객기가 갑자기 항로를 이탈, 소련의 노질스커 군사기지에 긴급 불시착하게 되는데 이 기체에는 8년전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유명한 발레댄서 니콜라이 로드첸코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소련측은 미국인으로서 월남전을 반대하다가 망명, 소련에 정착한 레이몬드와 그의 미모의 부인 다리아를 사주하여 KGB의 차이코 대령은 교묘한 방법으로 니콜라이의 전향을 획책하기에 이른다.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동·서의 두 세계에서도 예술의 자유를 희구하는 열정적 몸부림은 하나의 꿈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이 작품에서는 보여주고있다.

정통파 무용수와 브로드웨이의 톱 쇼계 출신의 탭 댄서 사이의 마찰은 자연적인 것이였지만 예술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구심력과 아내의 임신으로 인한 심적변화의 급격함은 니콜라이의 옛애인 카리나와 CIA의 탈출기회제공에 동참하게된다. 철의 장막을 벗어나는 이들의 탈출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하는 일편의 조산을 느끼게 했다.

미국대사관의 정문이 눈앞에 보이는 길위에서 니콜라이와 다리아, 그리고 차이코대령의 삼각선상의 심리변화과정의 추적묘사는 과히 이 작품의 포인트라 하겠다.

덜익은 감은 씹은듯한 억지웃음에 이그러지는 차이코대령의 표정은 절로 희열을 맛보게 하는 피에르像이다. 특히 기존의 「탈출영화」의 관념을 깨버리는 끝장면은 또 다른 탈출의 정석을 세우는 테크닉을 유감없이 보인 마지막 멋진 휘나래가 아니었나싶다.

<허 윤 기자>

메아리

스포츠 공화국

▲열 엿새동안 타오르던 聖火가 이제 모두 꺼지고 「스포츠공화국」의 위업이 마침내이루어졌다고 한다. 30억 아시안의 축제 「아시안 게임」에서日本을 제치고 종합2위의 성과를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1위인 中共과 불과金메달 한개차이로 말이다. 애초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사람들은 걱정도 많았을 게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대회 준비를 해 온것으로 안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아 종합2위의 위업을 달성하고 말았다. 聖火가 꺼지던 날 밤, 매스컴은 입을 모아 보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에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熱과 誠을 다한 결과이며 그 뒤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노라』고. ▲사실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완수를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것으로 안다. 우유를 마시는 옆의 친구가 부러웠다던 한 소녀가 中共, 日本선수들을 제치고 金메달을 차지하는 장면은 차라리 한편의 드라마였다. 90여개의 金메달을 따기위해 선수들이 쏟아넣은 피와 땀은 그야말로 눈물겨운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어디 선수들만의 노력이었겠는가. 그 이면에는 살던집이 헐리워져도묵묵히 물러설줄 아는 도시貧民이 있었고, 삶의 터에서 내쫓겨도참을성있게 버티어 나갔던 우리들 民衆의 피와 땀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이모든「시나리오」를 짜고 연출해 나갔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노고가있었음을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알고있는 사실인 것이다. ▲이제 또 우리는 온 인류의 축제 「88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명실공히 「우리의 서울을 세계의 서울로」 「우리들의 조국을 스포츠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환상적 시나리오의 연속인 셈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사람들의집이헐리워지고, 삶의 터를 떠나 방황해야 될지 모를 일이다. 그때에는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스포츠공화국」의 기치를 흔들며 민중들의 피와 땀을 쥐어 짤는지도 우리같은 사람들로서는 정말 알수없는 일이다. 일찌기 링컨은 『국민의 일부를 끝까지 속일수는 있다. 국민의 전부를 한때 속일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전부를 끝까지 속일수는 없다』고 갈파 했다고 하던데…。

<勝>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87年 大卒新入社員募集

現代와 함께 未來를 開拓해나갈 참신하고 進取的인 人材를 찾습니다.

1. 募集部門·人員 및 資格 總 2,300名

募集部門		人員	応試資格
理工系	機械工学·電子工学·電気工学 金属工学·産業工学·化学工学 造船工学·土木工学·建築工学 電子計算	1,600名	●正規4年制 大学 募集 該當学科 및 関聯学科 専攻者로 87年 2月 学士学位 取得予定者 또는 既取得者. ●1958年 1月 1日 以後 出生者로서 兵役畢 또는 免除者. ●海外旅行에 缺格事由가 없는 者.
人文社会系	経営学·経済学·貿易学 法学·行政学·英文学	700名	

2. 銓衡方法

가) 1次:筆記試驗(英語·專攻)
나) 2次:面接 및 身体検査(1次 合格者에 限함)

3. 提出書類

入社 志願書(當社 所定様式) ……… 2通
※大学 全学年 成績証明書는 1次合格者에 限하여 追後 提出

4. 筆記試驗 日時 및 場所

가) 日時:1986年 11月 2日(日) 午前9時
나) 場所:●서울地域 接受者
1) 理 工 系:建国大学校(城東区 毛陳洞)
2) 人文社会系:慶熙大学校(東大門区 回基洞)
●蔚山地域 接受者:蔚山大学校 (慶南 蔚山市 無去洞)

5. 志願書 交付 및 接受

가) 期 間:1986年 10月 6日(月)~10月 20日(月) 每日 午前9時~午後5時
나) 志願書 交付處

地域	交付處	電話
서울	서울特別市 鍾路区 桂洞 140-2 現代빌딩 別館(비원옆) 現代人力管理委員会	741-2111·3111·2121 (交)3232·3233·3234
蔚山	慶南 蔚山市 田下洞 1番地 現代重工業(株)人力管理部	32-1101·0151·2161 (交)2242·2243
釜山	釜山直轄市 中区 中央洞4街 80-1 現代自動車(株) 釜山中部営業所	44-8625~30
大邱	大邱直轄市 壽城区 泛魚洞 45-38 現代自動車(株) 大邱営業所	72-4971~5
光州	全南 光州市 西区 農城洞 415-12 現代自動車써비스(株) 光州自動車販売事業所	364-2111~20
全州	全北 全州市 西老松洞 627-1 現代自動車써비스(株) 全州自動車販売事業所	5-5206·5261
大田	忠南 大田市 中区 文化洞 1-19 現代自動車써비스(株) 大田営業所	253-6301~5

다) 志願書 接受處:서울(現代人力管理委員会)·蔚山(現代重工業 人力管理部)에서만 함.

6. 其 他

가) 郵便 接受는 登記郵便으로 마감일 午後5時限 到着하여야 함.
나) 郵便 接受者는 受驗票 返送用 봉투(郵票附着·本人住所記載)를 반드시 同封하여 郵送할 것.
다) 現役 服務中인 者는 86年 12月末 以前 転役者에 限하여 志願可能함.
라) 国家 報勲対象者는 関係法에 依據 優待함.
마) 其他 자세한 事項은 接受處에 問議바람.

1986年 10月

現代人力管理委員會